

소망
마음
202310
나눔
꿈



복음으로 하나되길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에베소서 2:14

- 강의 일정**
- 1주 10.20 | FRI** 북한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군대 양성
최광 목사 (염방빛선교회 대표, 탈북민 성경통독100독 학교 사역)
 - 2주 10.27 | FRI** 국제협력을 통한 북한 선교
정인수 선교사 · 목사 (전 국제 CCC 부총재, 전 NKCCC 대표)
 - 3주 11.3 | FRI** 북한 선교를 위한 남한 교회의 탈북민 사역
정형신 목사 (북한기독교총연합회 회장, 뉴코리아 교회 담임)
 - 4주 11.10 | FRI** 북한 경제와 장마당 세대
정은찬 교수 (통일교육원 교수)
 - 5주 11.17 | FRI** 탈북민 사역의 현재와 미래 Talk Show
김광호 전도사 (생명나무교회 담임)
김현정 전도사 (노원 새소망교회 담임)
오영화 전도사 (청주 은혜의길교회 담임)

일시 2023. 10. 20 - 11.17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장소 선교관 지하2층 제2예배실

문의 팀장 010 . 8791 . 2926 | 총무 010 . 3209 . 1059
회비 1만원 | 107-910028-45408 (하나은행, 윤유선)

온라인 신청서



CONTENTS

October 2023

하늘을 여는 기도	주에게서 흑암이 숨기지 못하나이다	2
깊어지는 영성	순전하게 김경진	4
묵상에 붙임	살아 있게 하소서 스탠리 하우어워스	6

WO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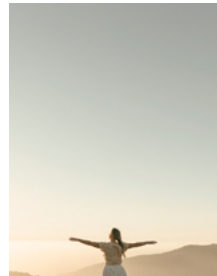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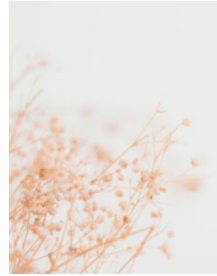
소망말씀나눔 활용법		10
말씀 개관		12
10월 본문	디모데후서·욥기	16
	1주(10/2) 2주(10/9) 3주(10/16) 4주(10/23) 5주(10/30)	

FAITH

땅끝에서 온 편지	다문화 선교 사역 배종혜	50
소망사랑방	산돌 손양원 목사님 장춘	86
전도서산책	쓴맛이 사는 맛 이순기	118
공간공감	오정동 선교사촌_크림하우스 홍성찬	156
이탈의 기도	청결한 마음, 복된 삶을 구하며	170

COMMUNICATION

문화읽기	<나의 위대한 친구, 세잔>을 통해 본 용서의 의미 황영미	172
소망마당	여름 잔치 교육부	176
그림묵상	산상수훈 이호연	180
예배자의 길	10월 우리의 고백 김경연·이수아·김경은	182
뿌리를 찾아서	온 세계가 나의 교구입니다 박경수·이근복	186
가정예배 오답노트	가정예배에서 부모는 정비사가 아니라 정원사입니다 신형섭	190
돌봄의 창	사랑과 신뢰 노승철	194
소망뉴스		198



주에게서 흑암이 숨기지 못하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위를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알고 지은 죄도 있사오나
모르고 지은 죄도 있습니다.
우리의 무지를 또한 용서하시고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순전하게

글 김영진



성경에는 예수님을 만나고 성공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제자들이 있죠. 세리인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8장에는 예수님을 만나고 도리어 근심거리를 갖게 된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만남이 그에게는 분명 큰 기회였지만, 그 엄청난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그가 관리의 일을 맡은 청년이자 부자였다고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젊고, 유능하고, 부유한 관리가 있었는데 주님께 나아와 질문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눅 18:18) 생각마저 바르고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화 끝에 그는 결국 근심한 채 길을 떠나게 됩니다(막 10:22). 구원의 길을 스스로 벗어나게 됩니다.

흥미롭게도 관리의 이야기 앞에 예수님께 달려나오는 어린아이들이 등장합니다. 이때에 주님은 어린아이들을 제지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눅 18:16) 달려나오는 아이들과, 세련된 질문을 던지는 관리인이 은연중에 대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얻는 방법을 질문하는 관리인에게 구약의 율법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는 중에 그가 지키지 못한 한 가지 율법을 가르쳐 주시죠.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 주라”(눅 18:22) 관리인은 이미 무엇인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부족함을 채우고자 예수님께 나아와 질문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후 그가 자신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라는 율법을 지켰다면 구원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이것이 그에게 정말로 부족한 것이었겠습니까? 우리는 마태복음에 기록된 산상수훈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는 구약의 율법을 해석하시며 마음에 노를 품지도 말고, 음욕조차 품지 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실상 모든 율법을 지켜 따를 수 없는 인간의 불가능성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관원의 잘못된 믿음을 드러내 보입니다.

결에서 함께한 자들이 묻습니다.

“그러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눅 18:26)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눅 18:27)

놀랍게도 곧이어 수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삼일 만에 살아나실 예수님의 부활이 예고됩니다(눅 18:31-34).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 스스로 길을 내시며 구원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만이 구원을 이루어 내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젊은 관원은 이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그와 달리 주님은 어린아이들을 칭찬하시며, 이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된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눅 18:17).

그렇다면 ‘어린아이 같은 자’는 누구입니까? 생물학적, 신체적 혹은 정신적으로 어린 상태를 뜻하는 표현일까요? 주님은 달려나오는 어린아이의 모습에 주목하십니다. **다시 말해 구원은 화려한 언변이나 선한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부르짖는 ‘믿음’으로 얻게 됩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구원의 새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의 신비입니다. 젊은 관원은 이 신비를 끝내 깨닫지 못하였지만, 예수님을 부르짖은 맹인의 믿음은 그로 눈뜨게 하며 구원의 길을 따라나서도록 이끕니다(눅 18:41-43).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행 2:21)

Meditation | 묵상에 붙임

살아 있게 하소서

글 스탠리 하우어워스



주님,
우리가 진짜 살아 있는 것인지요?
물론 우리는 때로 고통과 슬픔을 느낍니다.
때로는 행복해하기도 합니다.
울고, 흐느끼며 웃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아 있다는 징표인가요?
아니면 실제로는 죽었으나
생명이라는 가면을 쓰고 꿈틀대고 있을 뿐인지요?



이런 우리를 위해 당신께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 주셨다는 것도,
그분의 선한 죽음을 통해 세례를 받게 하셨다는 것도,
그 세례를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다는 것도,
우리는 믿기가 힘듭니다.
실은 어떻게 그렇게 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런 방식으로
사실상 죽어 있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의 통곡, 흐느낌, 웃음을 진짜로 만드셔서
다른 이들을 섬기게 하십니다.

이제 눈물 젖은 무덤에서 우리를 일으키시어
우리로 하여금 외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주님이시다!”

그리하여 이 생명 넘치는 세상이
생명을 주시는 당신을 보고
당신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아멘.

WORD

디모데후서 · 욥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단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머무르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겸손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무르며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소망말씀나눔 본문에 따른 새벽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 아이폰 : App Store에서 '소망교회'로 검색하여 설치
- 안드로이드폰 : T Store 혹은 Google Play에서 '소망교회'로 검색하여 설치
- 문의 : 교회사무실 02-512-9191 (내선 141~145)

말씀 속으로

2

월요일

요기 27:1-23

이제까지 488 회 성경에 언급된 말이 있고

말씀 속으로

1

숨이 또 풍겨하여 이르되
And Job continued his discourse:

2

나의 평양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것
능히의 자심을 두고 행하소서.
"As surely as God lives, who has denied me justice, the
Almighty, who has made me taste bitterness of soul,

3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
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as long as I have life within me, the breath of God in my
nostrils,

4

입과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여 내 혀가 거짓을 말하
지 아니하리라
my lips will not speak wickedness, and my tongue will utter
no deceit,

1단계 : 준비

말씀 앞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단계

말씀 앞에 조용히 앉으십시오. 묵상하는 동안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생각이 마음을 흔들어놓거나 묵상에 방해가 될 것 같다고 여겨지거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마음을 열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도록 먼저 기도하십시오.

2단계 : 이해

말씀을 읽고 귀로 듣는 단계

말씀을 두 번 정도 천천히 읽으십시오. 나직하게 소리 내어 읽으면 더 좋습니다. 입으로 읽으면 귀로 들리고, 귀로 들으면 그 뜻이 마음에 새겨집니다. 처음 읽을 때에는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본문을 읽으십시오. (본문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 목상집에 있는 《이해》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3단계 : 적용

말씀에 머물며 나를 살피는 단계

다시 한 번 읽으며 마음에 외닿는 말씀이나 새로 깨달은 말씀에 밑줄을 긋고, 그 말씀에 머무르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물으시면 정직하게 답변하십시오. 말씀 안에 머물며 나를 성찰하고 주시는 위로와 격려 뿐 아니라 질책까지도 귀 기울이십시오. (묵상을 위한 질문인 《적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말씀과 함께 세상속으로

새벽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 더욱 깊이 응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메시지 안에서 말씀의 교제를 나누며, 한 공동체가 되어 갑니다.

4단계 : 기도

내 삶 속에 하나님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단계

하나님께 응답하는 첫 번째 방법은 기도입니다.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삶의 현장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구하십시오. 본문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책상 안에서

아래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여 답안을 천천히 읽어 보시다

1. 살아 숨 쉬는 은혜입니다(1~12)

[illegible]

2. 하나님을 찾는 마을에서 최담이 피어오릅니다(03-20).

[illegible]

적용 | 달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보세요

1. 사람들은 하나님도 하나님은 함께하신다는 믿음이 율의 물결과 낚음에서 시작합니다. 삶이 곧 은혜 이자 신령이라는 믿음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서 오직 나는 아진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2. 하나님을 찾는 단식이 지속될수록 몸 안에 살고자 하는 욕구가 살아납니다. 힘이 복음을 느끼며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열심과 함께 세상 속으로

목상열기 | 마음에 외딴은 구절을 필사하여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보시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27:13-14 '주님이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님이 내 생명의 피난처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이 세상에 머무는 한 생애에, 내가 주님의 은사를 입을 것을 나는 확신했다. '내가 주님을 기다리라. 강하게 믿으라게 주님을 기다리라.'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아이디 기도 독서 운동 건강한 식습관 숙면 경험과 칭찬

디모데후서(1~4장)

로마 감옥에 투옥된 지도 벌써 두 번째.

그러나 ‘별써’라고 말하기에는 바울에게 남은 생이 얼마 없다.

오늘내일을 앓다투며 죽음이 그를 기다린다.

그래서 디모데후서를 두고 흔히들 바울의 유언이 담긴 서신이라고 부른다.

이 귀한 편지가 복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를 위하여 기록되고, 그를 향하여 나아가기 시작한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4:9)

발걸음을 재촉하는 아버지의 음성이 닿기 전, 짧지만 강렬한 가르침이 빠르게 전해진다.

너무나 보고 싶은 디모데이지만 혹여 보지 못할 미래를 염두에 두며

바울이 힘껏 사이의 시간을 걷고 있는 중이다.

그러면서 말한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1:8)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당사자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부탁이자 명령이다.

잠시 뒤, 고난을 두려워말라는 고백 사이로 경외의 언어가 떠오른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4:18)

삶과 죽음 사이에서, 기다림과 혹시나 성사되지 못할 소원 사이에서 바울이 걸은 길은 무엇이었는가.

그가 ‘기억’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불러 주시고 영생의 면류관을 예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기억’한다.

은혜의 빛 안에 서서 끝까지 충성된 자로 달음박질해 온 삶의 여정을.

복음을 확신했고, 생명을 의탁했고, 사랑과 온유와 절제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쳤다.

그가 ‘기억’한다.

구원의 길을 함께 걸으며 고난에 동참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은 동역자들을.

수고한 농부에게 허락되는 소출의 기쁨이 바울에게 먼저 임한다.

그가 ‘기억’한다.

참을 따르는 자들 속에는 거짓을 전하는 자들이 함께한다는 법칙을.

복음을 듣기는 들었으나 믿음을 저버린 자들이 바울의 마음을 사무치게 만든다.
 성경은 그들을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아니라고 말씀한다.

삶의 모든 흔적을 기억한 바울이 이제는 기억 속으로 디모데를 초청하며 자신과 연결시킨다.
 그러자 ‘거짓 없는 믿음’, ‘깨끗한 눈물’이 두 사람 사이를 수놓는다.
 꾸밈 없고 위선적이지 않은 순전한 믿음이 아버지와 아들을 연합시키고,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흘리는 눈물이 서로를 더욱 사랑하게 만든다.
 “주께서 네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4:22)
 거짓 없는 믿음에서 바른 기억이 나오고, 거짓 없는 믿음에서 구원의 기쁨이 흘러내린다.

한눈에 보는 이달의 본문

2~7일 주간		
2(월)	옴기 27:1~23	세 친구에 대한 옴의 대답 1
3(화)	디모데후서 1:1~5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인사말
4(수)	1:6~8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삶
5(목)	1:9~14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는 삶
6(금)	1:15~18	바울의 동역자 소개
7(토)	옴기 28:1~28	세 친구에 대한 옴의 대답 2
9~14일 주간		
9(월)	옴기 29:1~25	옴의 최후 변론 1
10(화)	디모데후서 2:1~7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
11(수)	2:8~13	은혜를 기억하는 삶
12(목)	2:14~19	말씀을 분별하며 전하는 삶
13(금)	2:20~21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의 기준
14(토)	옴기 30:1~31	옴의 최후 변론 2
16~21일 주간		
16(월)	옴기 31:1~23	옴의 최후 변론 3
17(화)	디모데후서 2:22~26	온유함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삶
18(수)	3:1~9	말세에 나타나는 징조
19(목)	3:10~13	지난날을 회고하는 바울
20(금)	3:14~17	성경이 안내하는 길
21(토)	옴기 31:24~40	옴의 최후 변론 4
23~28일 주간		
23(월)	옴기 32:1~22	엘리후의 등장
24(화)	디모데후서 4:1~5	바울의 마지막 권면
25(수)	4:6~8	바울이 싸워 온 선한 싸움
26(목)	4:9~16	바울의 사사로운 부탁
27(금)	4:17~18	영생에 대한 바울의 확신
28(토)	옴기 33:1~33	옴을 향한 엘리후의 가르침 1
30~31일 주간		
30(월)	옴기 34:1~20	옴을 향한 엘리후의 가르침 2
31(화)	디모데후서 4:19~22	편지를 끝맺는 인사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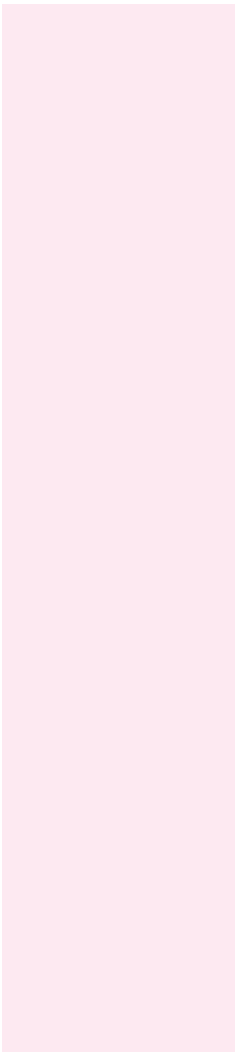
10

October 2023

SUN	MON	TUE	WED
1 창립 46주년 기념예배 (세례식)	2	3 개천절	4
8	9 한글날	10	11
15	16	17	18 권사회 월례회
22	23	24	25
29 종교개혁주일	30	31	

11	S	M	T	W	T	F	S
November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THU	FRI	SAT
5	6 여전도회 연합예배	7
12	13	14
19	20	21
26	27	28



1

주일

주일설교 노트

설교제목

성경본문

10/1~7

내가 의롭게 산다고 하여 주님께서 나에게 상을 내려 주시고,
나의 손이 깨끗하다고 하여 주님께서 나에게 보상해 주셨다.
(시 18:20)

October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말씀 속으로

1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And Job continued his discourse:

2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As surely as God lives, who has denied me justice, the Almighty, who has made me taste bitterness of soul,

3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as long as I have life within me, the breath of God in my nostrils,

4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my lips will not speak wickedness, and my tongue will utter no deceit,

-
- 5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I will never admit you are in the right; till I die, I will not deny my integrity.

- 6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I will maintain my righteousness and never let go of it; my conscience will not reproach me as long as I live.

- 7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May my enemies be like the wicked, my adversaries like the unjust!

- 8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For what hope has the godless when he is cut off, when God takes away his life?

- 9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Does God listen to his cry when distress comes upon him?

- 10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Will he find delight in the Almighty? Will he call upon God at all times?

- 11 하나님의 숨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I will teach you about the power of God; the ways of the Almighty I will not conceal.

- 12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You have all seen this yourselves. Why then this meaningless talk?

- 13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 업은 이것이라

Here is the fate God allots to the wicked, the heritage a ruthless man receives from the Almighty:

- 14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함이요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However many his children, their fate is the sword; his offspring will never have enough to eat.

-
- 15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The plague will bury those who survive him, and their widows will not weep for them.

- 16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Though he heaps up silver like dust and clothes like piles of clay,

- 17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what he lays up the righteous will wear, and the innocent will divide his silver,

- 18 그가 지은 집은 좀의 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The house he builds is like a moth's cocoon, like a hut made by a watchman,

- 19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He lies down wealthy, but will do so no more; when he opens his eyes, all is gone.

27:11 숨씨를
히브리어) '손을'

- 20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Terrors overtake him like a flood; a tempest snatches him away in the night,

- 21 동풍이 그를 들어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The east wind carries him off, and he is gone; it sweeps him out of his place,

- 22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It hurls itself against him without mercy as he flees headlong from its power,

- 23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 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It claps its hands in derision and hisses him out of his place.”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살아 숨 쉬는 은혜입니다(1~12).

짧게 기록된 빌닷의 세 번째 말은, 더 이상 욥과 논쟁하고 싶지 않다는 세 친구의 마음을 대변합니다(25장). 이후 엘리후라는 새 인물이 등장할 때까지 욥의 긴 독백이 이어지는 가운데 27장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관한 질문을 품습니다. 이 질문이 이곳에서 처음 등장한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욥을 비롯한 세 친구 모두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는 명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명제를 풀어 가는 과정에서는 차이를 보입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은 하나님이 의로우시므로 속히 회개하여 돌이킬 것을 경고하며 인과응보적인 태도를 견지했다면, 욥은 고난 ‘속’에서 의로우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믿음에 서 있습니다. 그러서는 도저히 고난의 원인을 알 수 없지만 마침내 모든 것을 바로 세우시고, 욥을 인정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실 하나님을 신뢰한 것입니다. 그 믿음이 코 끝에 붙어있는 작은 호흡에서 생명을 불드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는 모습 속에 발견됩니다(2~3절). 알몸 하나만 남은 현실에서 욥은 진정 ‘산다는 것’, ‘삶’의 의미를 깨닫고 있습니다.

2. 하나님을 찾는 마음에서 희망이 피어오릅니다(13~23).

한때는 동방의 으뜸가는 부자일 만큼 욥의 집안은 풍족했고, 복적이든 자녀들은 번성의 축복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사라진 지금에 와서는 지난날이 꿈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세 친구들은 욥이라는 사람에 관심을 기울이기보다 그가 가졌다가 잃게 된 소유에 집착하며, 사라진 재산만큼이나 욥의 믿음이 허사였다는 비난을 던지기 일쑤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친구들마저 의지할 이가 되어 주지 못하는 현실에 욥 스스로 비통함을 금치 못하였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그러니까 완전히 홀로 남겨진 현실에서 불현듯 욥은 여전히 살아 숨 쉬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러자 생명을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생명을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의 고백이 상처나고 찢겨진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하루아침에 가난뱅이가 된 자신을 보며 사람들은 등 돌리고 배신하지만, 의로우신 하나님은 곁에서 늘 동행하셨다는 사실을 직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이라는 존재,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그의 믿음을 주목하셨습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사람들은 떠나도 하나님은 함께하신다는 믿음이 욥의 들숨과 날숨에서 살아납니다. 삶이 곧 은혜이자 선물이라는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돌아봅시다.
2. 하나님을 찾는 탄식이 지속될수록 욥 안에 살고 싶어하는 욕구가 살아납니다. 하나님을 찾고 가까이함이 복임을 느끼며,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27:1,13~14 ¹ 주님이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님이 내 생명의 피난처이신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랴? ¹³ 이 세상에 머무는 내 한 생애에, 내가 주님의 은덕을 입을 것을 나는 확실히 믿는다. ¹⁴ 너는 주님을 기다려라.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기다려라.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3

디모데후서 1:1~5

화요일
개천절

오늘의 찬송 93 예수는 나의 힘ियो

 말씀 속으로

- 1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Paul, an apostle of Christ Jesus by the will of God, according to the promise of life that is in Christ Jesus,

- 2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네게 있을 지어다

To Timothy, my dear son: Grace, mercy and peace from God the Father and Christ Jesus our Lord,

- 3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 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I thank God, whom I serve, as my forefathers did, with a clear conscience, as night and day I constantly remember you in my prayers,

- 4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Recalling your tears, I long to see you, so that I may be filled with joy.

-
- 5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I have been reminded of your sincere faith, which first lived in your grandmother Lois and in your mother Eunice and, I am persuaded, now lives in you also.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바울과 디모데가 연합합니다(1~2).

디모데전서가 작성된 이후,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또 다른 서신을 기록합니다. 디모데는 혈육으로 낳은 친아들은 아니지만 말씀으로 양육해 온 자식 같은 존재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삶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지극한 마음이 죽음을 직감하는 시기에 편지를 남기도록 합니다. 전체적인 흐름에서 디모데후서는 디모데전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복음을 왜곡하며 믿음을 무너트리는 거짓 사도들에 대항하여 참 복음, 참 진리를 전파하는 일에 매진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몸은 비록 매어 있으나 복음을 전하는 삶만큼이나 복된 것이 없다고 회고하는 바울의 심정이 함께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늘 기억하며, 부르심에 순종해 온 그의 믿음이 고난을 능히 이겨 내도록 인도한 것입니다. 예수 안에 난 구원의 새 길을 기쁨으로 걸은 아버지의 순종이 이제 아들을 향해서도 흘러가며, 디모데를 통하여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게 합니다.

2. 바울과 디모데는 거짓 없는 믿음의 소유자입니다(3~5).

2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은 마케도니아 지역 교회의 위급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결국 디모데에게 에베소의 사역을 부탁하고 마케도니아로 향하게 되는데, 이 편지는 그곳에서 충실히 사역을 감당하는 디모데에게로 나아갑니다. 그가 ‘밤낮’ 쉬지 않고 디모데를 생각하며 간구하였다고 고백합니다(3절). 이토록 끈끈한 연합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는지 내심 부러운 가운데, 놀랍게도 바울은 디모데를 떠올릴 때마다 ‘눈물’과 ‘거짓 없는 믿음’이 생각난다고 전합니다(4~5절). 디모데가 흘린 눈물이 특정 사건에서 기인한 것인지의 여부는 알 수 없지만, 깨끗한 마음에서 눈물이 흐른다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에 디모데의 거짓 없는 믿음을 그리워한 바울의 심정을 엿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한 분 하나님을 섬기며, 마음과 생각과 행동에 있어서 위선적이지 않은 삶이 두 사람을 하나되도록 이끈 것입니다. 이때에 성경은 그들의 믿음이 조상에게서 내려온 유산임을 알리며, 순전한 믿음을 주시고 이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합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옥중에 매인 바울이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들어 섬기는 믿음에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 믿음을 디모데에게 전수하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부모, 배우자로서 무엇을 가르치며 사는지 돌아봅시다.
2. 디모데의 거짓 없는 믿음은 바울과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나와 가정, 교회 안에 순전한 믿음이 자라나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 눈물 흘리는 백성이 되기를 사모합니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19:9~14 ⁹ 주님의 말씀은 티 없이 맑아서 영원토록 견고히 서 있으며, 주님의 법규는 참되어서 한결 같이 바르다. ¹⁰ 주님의 교훈은 금보다, 순금보다 더 탐스럽고,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콤하다. ¹¹ 그러므로 주님의 종이 그 교훈으로 경고를 받고, 그것을 지키면, 푸짐한 상을 받을 것이다. ¹² 그러나 어느 누가 자기 잘못을 낱알이 알겠습니까? 미처 깨닫지 못한 죄까지도 깨끗하게 씻어 주십시오. ¹³ 주님의 종이 죄인 줄 알면서도 고의로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 주셔서 죄의 손아귀에 다시는 잡히지 않게 지켜 주십시오. 그 때에야 나는 온전하게 되어서, 모든 끔찍한 죄악을 벗어 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¹⁴ 나의 반석이시요 구원자이신 주님,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4

수요일

디모데후서 1:6~8

오늘의 찬송 440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말씀 속으로

- 6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For this reason I remind you to fan into flame the gift of God, which is in you through the laying on of my hands,

- 7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For God did not give us a spirit of timidity, but a spirit of power, of love and of self-discipline,

- 8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So do not be ashamed to testify about our Lord, or ashamed of me his prisoner. But join with me in suffering for the gospel, by the power of God,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바울이 디모데에게 안수하기를 원합니다(6).

디모데의 거짓 없는 믿음이 바울을 크게 감동시킵니다. 이에 그는 디모데가 자신을 이어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을 성심껏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 디모데가 특별히 출중해 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마음이 바울을 사로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부탁을 남기며 심정적으로만 호소하지 않았습니니다. 디모데가 사역을 감당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현실적인 준비까지 갖추고자 합니다. “그대가 나의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즉 디모데가 연소하여 혹시라도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일이 없도록 안수를 주겠다고 말합니다. 물론 안수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는 없지만, 그럼에도 안수를 주고자 한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은사가 불일듯 하게 한다”, 안수를 받은 디모데가 마음에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일에 정진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때에 바울은 감동된 마음조차도 성령님의 역사하심이라고 이야기하는 듯, ‘하나님의’ 은사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권면합니다.

2.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7~8)

우리는 잠시 바울이 머문 자리를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지금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옥살이를 하는 중입니다. 게다가 언제라도 내려질 사형선고가 바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디모데후서에 나타난 바울의 문체에는 조금의 망설임이 없고, 도리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을 보여 줍니다. 그 비결이 무엇인지 7절에 소개되며,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사는 자의 삶을 가르쳐 줍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성령에 감동되지 않고 스스로의 행위를 따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에게는 언제든지 두려움이 틈타기 쉽고, 거짓 교훈에 미혹되어 잘못된 길로 들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믿음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날로 드러나는 은혜가 함께합니다. 성경은 그 열매를 가리켜 능력이요, 사랑이요, 절제라 말하며 하나님과 함께 고난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고난을 이기는 영광스런 삶을 살라고 부탁드립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바울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감당하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하며 구하는 겸손함이 선행하고 있습니까?
2. 바울은 고난 자체를 부정하기보다 믿음을 따라 고난을 극복하는 삶을 가르칩니다. 나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어떻게 해결하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보여 주고 있습니까?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18:28~32 ²⁸ 아, 주님, 진실로 주님은 내 등불을 밝히십니다. 주 나의 하나님은 나의 어둠을 밝히십니다. ²⁹ 참으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도와주시면, 나는 날쌔게 내달려서 적군도 뒤쫓을 수 있으며, 높은 성벽이라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³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흠도 없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티도 없다. 주님께서 피하여 오는 사람에게 방패가 되어 주신다. ³¹ 주님 밖에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밖에 그 어느 누가 구원의 반석인가? ³² 하나님께서 나에게 용기를 북돋우어 주시며,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안전하게 지켜 주신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말씀 속으로

- 9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사 기록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who has saved us and called us to a holy life - not because of anything we have done but because of his own purpose and grace. This grace was given us in Christ Jesus before the beginning of time,

- 10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폐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but it has now been revealed through the appearing of our Savior, Christ Jesus, who has destroyed death and has brought life and immortality to light through the gospel.

- 11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And of this gospel I was appointed a herald and an apostle and a teacher,

-
- 12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
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위탁한 것을 그 날까
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That is why I am suffering as I am. Yet I am not ashamed,
because I know whom I have believed, and am convinced that
he is able to guard what I have entrusted to him for that day.

- 13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써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What you heard from me, keep as the pattern of sound teaching,
with faith and love in Christ Jesus,

- 14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
운 것을 지키라

Guard the good deposit that was entrusted to you - guard it
with the help of the Holy Spirit who lives in us,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합니다(9~12).

바울과 디모데가 산 시대에는 명예를 추구하는 문화가 자리했습니다. 사람들은 수치당하는 일을 꺼려했고, 수치당하는 자는 자연스레 모욕을 당하곤 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몸이 매인 현실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그를 도울 디모데에게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그리고는 복음과 함께 즉 복음을 위해 고난받고, 복음으로서 고난을 헤쳐 나가는 삶이 귀하다고 충언합니다. 그가 동역자들과 서신을 주고받는 중에 이 사실을 보다 깊이 헤아렸을 듯합니다. 바울을 부르신 하나님이 또한 그의 백성을 계속해서 부르시며 구원의 경륜을 이루어 가시니 자신이 전한 복음이야말로 참이요, 진리라는 확신이 더해진 것입니다. 이렇듯 모두를 부르시며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수난당하심, 죽임당하심, 그리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부활하심을 통하여 만방에 나타난 바 되었습시다. 그래서 바울은 뜻대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선포자, 사도, 교사의 삶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습시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의 확신이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 날까지 이룹니다.

2. 복음을 따르는 것만큼이나 잘 듣는 일은 중요합니다(13~14).

확신에 찬 바울일지언정 그 역시 인간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시다. 한때는 예수를 부인하며 그리스도인을 핍박한 삶이 그의 연약함을 증명하기도 합니다. 이에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13절). 다시 말해 바울이 담대히 살아가며 디모데를 힘있게 고무시킨 동력에는 그리스도의 믿음이 함께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예수 안에 사는 자들이 누리는 특권이기도 한데, 주께서 친히 성도의 믿음의 분량을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의 분량대로 장성하게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이 일에 바울은 ‘바른 말’ 곧 바른 복음, 바른 말씀을 지속해서 듣고 따르는 일이 필요하다고 역설합니다(13절). 복음이 먼저는 듣는 자를 바르게 세우며 그를 통하여 공동체와 세상을 변화시켜 갑니다. 그런데 잘 ‘듣는’ 행위에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14절). 성령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참 복음도 거짓되게 듣고, 거짓되게 전할 수 있는 까닭입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바울이 고난을 이긴 원동력에는 삶을 ‘의탁’하고, 은혜를 ‘확신’한 믿음이 있습니다. 나의 주인은 누구이며 이 믿음에 확신하여 살고 있습니까?
2. 성령님의 조명하심에 따라 말씀을 들을 때 잘 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일과의 시작에 있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까?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143:8~11 ⁸ 내가 주님을 의지하니, 아침마다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 내 영혼이 주님께 의지하니, 내가 가야 할 길을 알려 주십시오. ⁹ 주님, 내가 주님께로 몸을 피하니, 내 원수들에게서 건져 주십시오. ¹⁰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니,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의 선하신 영으로 나를 이끄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¹¹ 주님,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님의 의로우심으로 내가 받는 모든 고난에서 내 영혼을 건져 주십시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6

금요일

디모데후서 1:15~18

오늘의 찬송 220 사랑하는 주님 앞에

 말씀 속으로

- 15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아나니
그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You know that everyone in the province of Asia has deserted me, including Phygelus and Hermogenes.

- 16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May the Lord show mercy to the household of Onesiphorus, because he often refreshed me and was not ashamed of my chains.

- 17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On the contrary, when he was in Rome, he searched hard for me until he found me.

18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 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네가 잘 아느니라

May the Lord grant that he will find mercy from the Lord on that day! You know very well in how many ways he helped me in Ephesus.

1:18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에베소에서 바울이 사역한 3년 동안 오네시보로가 섬겼으리라고 추측된다(행 19~20장).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바울이 비통한 심정을 표현합니다(15).

바울을 보면서 사람들이 비아냥거렸는지 모릅니다. 죽음을 앞두고도 의연한 모습에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다는 수군거림이 들려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 자신이 처한 현실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15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습니다.” 설마 ‘모든’ 아시아인일까 싶은 의구심이 들 만큼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비통한 심정이 구구절절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바울의 가슴을 아프게 한 대표적인 두 인물 부겔로와 허모게네의 이름을 남깁니다. 그들이 벌인 행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지진 않았지만 시대적인 분위기에 비추어 볼 때에 바울이 전한 복음을 왜곡시키며, 사람들을 불의한 길로 인도해 낸 듯합니다. 이 소식이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도 한 사실이지만, 한편으로는 복음과 ‘나’ 곧 바울 자신을 동일시시킨 믿음이 놀랍기만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며, 믿음을 저버린 자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린 순전한 사도였습니다.

2. 믿음 안에서 연합이 서로를 살립니다(16~18).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주는 부겔로와 허모게네 같은 인물이 있었다면, 바울을 심히 기쁘게 하며 위로를 건넨 오네시보로도 함께합니다. “그는 여러 번 나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고, 내가 쇠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로마에 와서는 더욱 열심히 나를 찾아 만나 주었습니다.”(16~17절)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당시에 두 사람 사이에 인연이 생긴 것으로 짐작됩니다. 그렇게 시작된 만남은 계속해서 이어졌고, 로마 감옥에 수감 중인 바울을 방문하고자 오네시보로가 위협과 수치를 무릅쓰고 찾아갑니다. 과연 그가 몇 번이나 바울을 만났을지 빈도수에 관한 기록은 없지만, 그의 정성스런 마음이 증언되는 건 사실입니다. 부겔로나 허모게네처럼 복음에서 떠난 자들이 생겨나는 그때에 누군가는 바울과 그가 전한 복음을 믿고 따르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고난에 참여하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 연합을 통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고, 서로를 살리는 비전을 제시합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바울의 탄식을 묵상하면서 이 땅의 교회 안에 회복되어야 할 탄식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2. 성도 간의 사귄 속에서 복음이 확장됩니다. 나의 가정, 내가 속한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119:136~140 ¹³⁶ 사람들이 주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니, 내 눈에서 눈물이 시냇물처럼 흘러내립니다.
¹³⁷ 주님, 주님은 의로우시고, 주님의 판단은 옳바르십니다. ¹³⁸ 주님께서 세우신 증거는 의로우시며, 참으로
진실하십니다. ¹³⁹ 내 원수들이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니, 내 열정이 나를 불사릅니다. ¹⁴⁰ 주님의 말씀은
정려되어 참으로 순수하므로, 주님의 종이 그 말씀을 사랑합니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말씀 속으로

- 1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제련하는 곳이 있으며

“There is a mine for silver and a place where gold is refined.

- 2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Iron is taken from the earth, and copper is smelted from ore.

- 3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Man puts an end to the darkness; he searches the farthest recesses for ore in the blackest darkness.

- 4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Far from where people dwell he cuts a shaft, in places forgotten by the foot of man; far from men he dangles and sways.

- 5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The earth, from which food comes, is transformed below as by fire;

6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sapphires come from its rocks, and its dust contains nuggets of gold.

7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No bird of prey knows that hidden path, no falcon's eye has seen it.

8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Proud beasts do not set foot on it, and no lion prowls there.

9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Man's hand assaults the flinty rock and lays bare the roots of the mountains.

10 반석에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He tunnels through the rock; his eyes see all its treasures.

11 누수를 막아 스며 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데로 끌어내느니라

He searches the sources of the rivers and brings hidden things to light.

12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가

But where can wisdom be found? Where does understanding dwell?

13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Man does not comprehend its worth; it cannot be found in the land of the living.

14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The deep says, 'It is not in me'; the sea says, 'It is not with me.'

15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It cannot be bought with the finest gold, nor can its price be weighed in silver.

16 오벨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It cannot be bought with the gold of Ophir, with precious onyx or sapphires.

17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Neither gold nor crystal can compare with it, nor can it be had for jewels of gold.

18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Coral and jasper are not worthy of mention; the price of wisdom is beyond rubies.

19 구스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The topaz of Cush cannot compare with it; it cannot be bought with pure gold.

20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Where then does wisdom come from? Where does understanding dwell?

21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It is hidden from the eyes of every living thing, concealed even from the birds of the air.

22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Destruction and Death say, 'Only a rumor of it has reached our ears.'

23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God understands the way to it and he alone knows where it dwells,

24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for he views the ends of the earth and sees everything under the heavens.

25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When he established the force of the wind and measured out the waters,

26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음이라

when he made a decree for the rain and a path for the thunderstorm,

27 그때에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then he looked at wisdom and appraised it; he confirmed it and tested it,

28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And he said to man, "The fear of the Lord - that is wisdom, and to shun evil is understanding."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지혜는 인간에게 속해 있지 않습니다(1~11).

27장부터 빗발치는 욥의 독백에는 친구들을 향한 하소연이 강하게 묻어납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에게만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욥 그도 평생에 걸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신뢰해 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불어닥친 환난은 그를 혼란스럽게 하며 의구심을 품게 만들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욥 안에는 겸손함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한 믿음이 사실은 온전치 못한 것이요, 인생은 결코 하나님의 지혜를 다 헤아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생각과 의지를 점차 내려놓으며 때가 이르면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여 주실 하나님을 '다시' 신뢰합니다. 그러니 욥의 눈에 세 친구는 현자의 모양만 하고 있을 뿐 정작 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우둔한 자에 불과합니다. 성경은 빛과 어둠, 선과 악, 지혜와 어리석음을 저울질하며 다 안다고 말하는 이들은 결국 스스로 넘어지게 된다고 가르쳐 줍니다(3~4절).

2.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혜를 얻습니다(12~28).

하나님께 매달리는 욥에게 선명한 깨달음 하나가 올라옵니다. 지혜는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 앞에서 이전보다 겸손해진 욥의 마음을 있게 만듭니다. 여기서 우리는 역으로 인생이란 지혜를 얻는 과정이라고 표현하게도 됩니다. 이 교훈을 얻게 하고자 욥에게 고난이 허락된 건 아니었는지 생각이 드는 이때에 성경은 지혜를 얻는 길, 다시 말해 사람이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을 알려 줍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악을 멀리하는 것이 슬기다.”(28절) 한마디로 스스로 겸비하여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잊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당장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과 다르게 하나님은 만사를 두루 주관하시는 천지의 창조주입니다(24절). 그분은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고,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만드시고, 구름의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25~26절). 그래서 욥은 하물며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사람의 인생이야 다를 수 있겠냐고 반문하며 찬양의 언어를 냅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성경은 고난을 통과하면서 겸비한 마음을 갖추어 가는 욥을 묘사합니다. 고난과 함께하는 믿음, 고난에 따른 인내의 열매를 보면서 나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2.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혜를 얻고, 지혜를 얻은 자는 하나님을 높입니다. 말씀에 비추어 나의 마음은 무엇을 향하고 나의 입은 어떤 언어를 내는지 살펴봅시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14:1~5 ¹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 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구나. 그들은 한결같이 썩어서 더러우니, 바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²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사람을 굽어보시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보신다. ³ 너희 모두는 다른 길로 빗나가서 하나같이 썩었으니,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⁴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한 자냐? 그들이 밥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나 주를 부르지 않는구나. ⁵ 하나님이 의인의 편이시니, 행악자가 크게 두려워한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다문화 선교 사역

글 배종혜 선교사 (국내 다문화 선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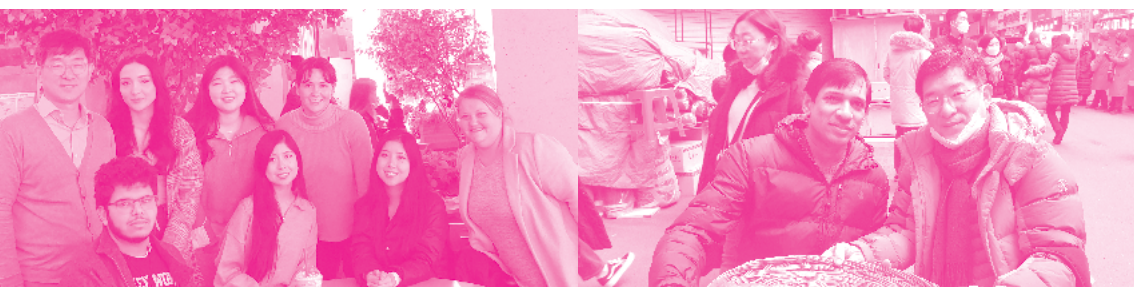


국내에서 목회자로 선교를 겸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과거 13여 년 선교사 경험의 영향이 있지만, 국내 '교회 개척'의 어려운 현실도 작용합니다. 지금은 외국인 유학생 사역과 다문화 합창단 사역 속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과 후로 250만 명의 외국인은 K-Pop의 줄기를 타고, 더 많이 한국 땅을 밟고 있습니다. 36만의 다문화 가정, 20만의 외국 유학생, 20만 이상의 다문화 자녀들, 나아가 노동자들을 합하면 대구 전체 시민과 맞먹는 인구입니다. 그중에는 단기 체류도 있지만 고국을 떠나 한국 국적을 취득하여 우리의 이웃으로 살면서도 유창하게 한국말을 하는 것을 보면, 이 시각도 다양하게 변화하는 한국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다문화 사역을 아래와 같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첫째 '외국인 유학생 사역'을 합니다. 2023년 9월 현재, 한양대학교(안산 캠퍼스 포함)에는 약 9천 명의 외국 유학생이 있어 학교를 방문할 때면 미국의 우수한 대학이라는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아랍권, 동남 아시아권, 영미권에서 온 유학생들은 다양한 삶과 다양한 종교로 구성되어 선교 전략의 다양함이 요구됩니다. 또한 접촉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략을 찾게 합니다. 즉 그들은 바쁘면서도 외롭기에 그들이 원하는 K-Pop, 전통문화 체험 같은 한국 문화생활을 찾아 주는 선교 전략이 필요합니다. 반면 복음이 우선되어야 함에도 그들과의 관계가 선행됨을 추구하며 한국어 교사로, 보드게임의 친구로, 전통문화 탐방, 등산, 한강 놀이 팀 등을 만드는 것은 중요한 선교 전략이자 접촉점이 됩니다. 실제로 제가 속한 B.I(해외 유학생부) 간사와 선교사들은 수년간 몇 번의 시행착오를 거친 후에야 그들과 친구가 되어 대화하고 있습니다.



둘째 '다문화 가족 합창단' 사역을 합니다. 합창은 좋은 교제의 장과 공동체를 만들어 줍니다. 다문화 가족이 한국 노래를 배우고 문화를 공유함으로써 한국인으로 온전히 자리매김하는데 뜻을 두어 구청의 다문화 센터와 협업하여 올 4월에 시작하였습니다. “하는 일마다 복이 온다”라는 뜻을 가진 순우리말의 ‘다올’ 가족 합창단은 9월 현재 약 20여 명의 다문화 가정의 어머니(필리핀, 캄보디아, 우즈벡, 카자흐스탄, 일본, 미국 등)들이 함께하고 있으며, 장래 한국 단원의 보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사역 전략의 특징은 혼자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특히 한글(음악) 교사, 그룹 리더, 자원봉사자가 절실히 필요한 사역인 만큼 봉사자를 위해 기도하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다문화 유학생 사역이 무엇이라고 물으신다면, ‘작은 목장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학생들과 다문화 가정이 함께하는 ‘사랑의 목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기에 같은 문화권을 작은 목장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한 전략입니다. 미국에서 유학생으로 지낸 시절, 현지 교회에서 경험한 목장 모임은 지금도 제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빛진 자의 심정으로 그들과 함께 ‘사랑의 목장’ 모임을 하고 싶습니다. 머지않은 장래에 그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찬양을 부르고, 신앙상담을 해 주는 영적 모임이 허락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기도 제목

- 외국인 유학생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예배 장소, 한국어 교실, 소그룹 모임 등)을 허락하소서
- 유학생과 다문화합창단을 섬길 동역자를 주소서
- 매주 토요일마다 모이는 ‘사랑의 목장’에 유학생들과 다문화 합창단원이 초대되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섬김의 장소가 되게 하소서!

8

—
주일

주일설교 노트

설교제목

성경본문

10/8~14

깨끗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간교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절묘하심을 보이십니다. (시 18:26)

October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말씀 속으로

1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Job continued his discourse:

2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How I long for the months gone by, for the days when God watched over me,

3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치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다녔느니라

when his lamp shone upon my head and by his light I walked through darkness!

4 내가 원기 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 주셨도다

Oh, for the days when I was in my prime, when God's intimate friendship blessed my house,

5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when the Almighty was still with me and my children were around me,

-
- 6 젖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when my path was drenched with cream and the rock poured
out for me streams of olive oil,

- 7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
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When I went to the gate of the city and took my seat in the
public square,

- 8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the young men saw me and stepped aside and the old men
rose to their feet;

- 9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the chief men refrained from speaking and covered their
mouths with their hands;

- 10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
느니라

the voices of the nobles were hushed, and their tongues stuck
to the roof of their mouths,

- 11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Whoever heard me spoke well of me, and those who saw me
commended me,

- 12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because I rescued the poor who cried for help, and the fatherless who had none to assist him,

- 13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The man who was dying blessed me; I made the widow's heart sing.

- 14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겹옷과 모자 같
았느니라

I put on righteousness as my clothing; justice was my robe and my turban.

- 15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I was eyes to the blind and feet to the lame.

- 16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
아 주었으며

I was a father to the needy; I took up the case of the stranger.

- 17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잇새에서 빼내
었느니라

I broke the fangs of the wicked and snatched the victims from their teeth.

-
- 18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I thought, 'I will die in my own house, my days as numerous
as the grains of sand.

- 19 내 뿌리는 물로 뻗어 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My roots will reach to the water, and the dew will lie all night
on my branches,

- 20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
았노라

My glory will remain fresh in me, the bow ever new in my
hand.'

- 21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
하였노라

Men listened to me expectantly, waiting in silence for my
counsel.

- 22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음이라

After I had spoken, they spoke no more; my words fell gently
on their ears.

- 23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They waited for me as for showers and drank in my words as
the spring rain.

- 24 그들이 의지 없을 때에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 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When I smiled at them, they scarcely believed it; the light of
my face was precious to them.

- 25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
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I chose the way for them and sat as their chief; I dwelt as a king
among his troops; I was like one who comforts mourners."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욥이 지난날을 회상합니다(1~17).

하나님만이 소망이시라는 믿음이 자라나고는 있지만, 욥을 둘러싼 환경은 여전히 어렵기만 합니다. 이렇듯 믿음의 분량이 자라는데 시간이 걸리듯이, 믿음이 바라는 실상이 현실로 성취되기까지도 시간은 필요합니다. 이 사이의 시간을 주목하는 욥기서는 낙망을 거듭하는 중에도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믿음 위에 서 있기를 요청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29장에 묘사된 욥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가 지난날을 회상하며 들려주는 이야기는 그야말로 축복 받은 인생이 무엇인지를 실감나게 합니다. 그러나 욥이 진정 기억한 것은 옛적에 누린 호사나, 사람들로부터 받은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던 그 지나간 날로 되돌아갈 수 있으면 좋으련만! 그때에는 하나님이 그 등불로 내 머리 위를 비추어 주셨고,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대로 내가 어둠 속을 활보하지 않았던가?”(2~3절) 그는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보호해 주신 과거를 떠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소환하며 현재의 고난을 해석하고, 여호와와의 구원을 잠잠히 기다리겠노라고 결단합니다.

2. 말은 살리는 힘을 가집니다(18~25).

앞 단락에는 욥이 하나님을 회상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건넨 말이 기록됩니다. 하나님이 욥을 의인이라고 인정하신 것처럼 사람들도 그를 칭송하며, 욥과 함께하신 하나님을 높였다는 것입니다. 본 단락은 다른 관점에서, 즉 사람들이 아닌 욥 자신이 하나님을 어떻게 드러내며 살았는지를 보여 줍니다. “사람들은 기대를 가지고 내 말을 듣고 내 의견을 들으려고 잠잠히 기다렸다. 내가 말을 마치면 다시 뒷말이 없고, 내 말은 그들 위에 이슬처럼 젖어들었다.”(21~22절) 성경은 의로운 말을 가지고 하나님을 증언한 욥의 삶에 초점을 두며, 그의 말이 사람들 사이에 스며들 만큼 능력이 있었다고 전합니다. 슬픔에 사로잡힌 자를 위로하고 갈 길을 헤매는 자에게 길을 비추어 준 욥의 말이 이제 그 자신을 살려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며 죽음을 외친 그에게서 하나님을 찾는 목소리가 들리며,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 엿보입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모든 것을 가진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영광을 올린 욥의 믿음을 보면서 주시는 마음을 기록해 봅시다.
2. 비난과 정죄가 가득한 중에 욥은 하나님을 찾고 부르며, 사실상 자신이 살아나는 경험을 합니다. 영혼을 살피우는 기도 생활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84:5~8 ⁵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⁶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샘물이 솟아서 마실 것입니다. 가을비도 샘물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⁷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으며 올라가서, 시온에서 하나님을 우러러볼 것입니다. ⁸ 주 만군의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 주십시오. 야곱의 하나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셀라)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10

디모데후서 2:1~7

화요일

오늘의 찬송 342 너 시험을 당해

 말씀 속으로

- 1 내 아들이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You then, my son, be strong in the grace that is in Christ Jesus.

- 2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And the things you have heard me say in the presence of many witnesses entrust to reliable men who will also be qualified to teach others.

- 3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Endure hardship with us like a good soldier of Christ Jesus.

- 4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No one serving as a soldier gets involved in civilian affairs - he wants to please his commanding officer.

5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Similarly, if anyone competes as an athlete, he does not receive the victor's crown unless he competes according to the rules.

6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The hardworking farmer should be the first to receive a share of the crops,

7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Reflect on what I am saying, for the Lord will give you insight into all this.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은혜 안에 거함이 복입니다(1~2).

1장의 주된 메시지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권면입니다. 사실상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수반되는 고난을 인정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복음을 전하며 받게 되는 고난의 형태는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바울처럼 옥중에 매일 수도 있고, 오네시모로처럼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에도 불구하고 전도자를 위로는 발걸음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그 형태가 무엇이든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또한 복음으로서 고난을 극복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지속해서 요청합니다. 물론 복음을 따라 몸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그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항상 ‘기억’하며, 부르신 은혜 안에 굳건히 서 있기를 부탁합니다(1절). 그럴 때에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셨듯이 디모데로 하여금 많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2절).

2. 좋은 병사의 원칙이 소개됩니다(3~7).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길에는 몇 가지 자세가 필요합니다. 성경은 이 길을 걷는 자를 ‘병사’라고 칭하며, 하나님이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병사의 특징을 설명합니다. 첫째, 이들은 부르신 이를 알고 부르신 이를 기쁘시게 하는 목적을 가집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데 여기에는 삶을 ‘의탁’하는 믿음이 함께합니다(4절). 다시 말해 좋은 병사란 주인을 위해서라면 고난받는 가능성에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고난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도 가르쳐 주며,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방식으로 대처한다면 경기의 법칙을 어기고 경기장을 이탈한 선수에 불과하다고 꾸짖기도 합니다(5절). 셋째, 하나님이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병사는 충성된 마음을 따라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자들입니다(6절). 그들에게는 영생의 면류관이 약속되는데(2:10), 이 말을 전하는 바울 마음 한편에는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삶 자체가 이미 복이라고 고백하는 듯도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의 은혜를 아는 자야말로 참 지혜자입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바울의 가르침에 나타나는 기동 중 하나는 ‘은혜’입니다. 은혜에 굳건히 서는 믿음을 격려하는 디모데후서를 묵상하면서 믿음이 필요한 사람을 위하여 중보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2. 좋은 병사의 원칙 중에서 감동을 주는 구절이 있다면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루로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시편 116:12~13,16~17 ¹²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었습니까? ¹³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¹⁶ 주님, 진실로,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 주님의 여종의 아들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결박을 풀어 주셨습니다. ¹⁷ 내가 주님께 감사제사를 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11

수요일

디모데후서 2:8~13

오늘의 찬송 323 부름 받아 나선 이 몸

 말씀 속으로

- 8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Remember Jesus Christ, raised from the dead, descended from David. This is my gospel,

- 9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for which I am suffering even to the point of being chained like a criminal. But God's word is not chained.

- 10 그러므로 내가 택함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Therefore I endure everything for the sake of the elect, that they too may obtain the salvation that is in Christ Jesus, with eternal glory.

- 11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Here is a trustworthy saying: If we died with him, we will also live with him;

12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if we endure, we will also reign with him. If we disown him,
he will also disown us;

13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
하실 수 없으시리라

if we are faithless, he will remain faithful, for he cannot
disown himself.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은혜를 기억하고, 복음을 전하십시오!(8~10)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에 관한 말씀을 마치고(2:4-7), 바울이 선포를 이어 갑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나시고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8절) 좋은 병사가 되기를 꿈꾸며 그렇게 살기를 노력하더라도 일의 시작과 마침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인지 8절의 기록된 ‘기억하라’는 단어가 율림을 주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은혜’의 차원은 바울 신학 면면에 흐르는 중요한 영역인데, 그는 자신과 디모데를 비롯하여 자녀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되었다고 선포합니다. 이 땅에 다윗의 씨로 나시고, 수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마침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 사건 속에서 말입니다. 이 사건은 영원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고, 선지자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이 응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만물을 운행하고 계시니, 먼저 부름받은 백성은 복음을 증거하며 많은 자를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는 일에 힘을 다해야 합니다(10절).

2.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듯이 바울도 인내합니다(11~13).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낸 바울도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일을 부인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곧 복음을 부인하고 구원의 길에서 돌이키는 데에는 디모데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일깨워 줍니다(12절). 그만큼 자신에 이어서 전도자의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 디모데에게 거룩한 책임감을 심겨 준 셈입니다. 이 말을 전하는 바울의 마음 한편에는 믿음을 저버리고 떠나는 자들을 향한 염려가 함께합니다. 이에 따라 주께서도 부인하실 미래를 상기시키며, 거짓 교훈을 따라 잘못된 길에 들어선 자 한 명이라도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비춥니다. 그 마음이 당장에 부인하시기보다 ‘부인하실’, 그러니까 잠잠히 기다리고 계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으셔서 항상 신실하시며 죄인의 돌이킴을 누구보다 기뻐하십니다(13절). 그러니 이 땅에서 날마다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깨끗한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이 반기를 원하시는 예물이기도 합니다(11절).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명령하며, 기억을 바르게 세우는 일을 강조합니다. 나의 생각, 감정,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선한 열매를 맺기를 기도합니다.
2. 여호와의 자비에 붙들린 믿음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복음을 부인한 자를 정죄하기보다 돌이키는 일에 애쓰는 바울의 열심을 보며 어떤 마음이 됩니까?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63:6~8 ⁶ 잠자리에 들어서도 주님만을 기억하고 밤을 새우면서도 주님만을 생각합니다. ⁷ 주님께서 나를 도우셨기에 나 이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즐거이 노래하렵니다. ⁸ 이 몸이 주님께 매달리니,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꼭 붙잡아 주십니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말씀 속으로

- 14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Keep reminding them of these things. Warn them before God against quarreling about words; it is of no value, and only ruins those who listen.

- 15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Do your best to present yourself to God as one approved, a workman who does not need to be ashamed and who correctly handles the word of truth.

- 16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감이라

Avoid godless chatter, because those who indulge in it will become more and more ungodly.

- 17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Their teaching will spread like gangrene. Among them are Hymenaeus and Philetus,

18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함으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who have wandered away from the truth, They say that the resurrection has already taken place, and they destroy the faith of some.

19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렸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
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Nevertheless, God's solid foundation stands firm, sealed with this inscription: "The Lord knows those who are his," and, "Everyone who confesses the name of the Lord must turn away from wickedness."

2:19 주께서 자기 백성
을 아신다 하며
민 16:5

2:19 주의 이름을 부
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사 26:13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보시다.

1.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14~15).

흥미롭게도 본 단락은 8절과 동일하게 ‘기억하라’는 단어와 함께 열립니다(14절). ‘그들’, 아마도 모든 그리스도인을 지칭하며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당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복음을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서 있을 때라야 인간은 참 교훈과 거짓 교훈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참과 거짓을 구별하고, 분별한 말씀을 전하고, 전한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 드러져야 하는 산 제사라고 이야기합니다(15절). 여기에는 디모데로 먼저 본이 되어 바른 복음을 전하고, 고난당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격려가 함께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들려주어야 할 상대에 관하여서도 어느 정도 주의가 요구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디모데는 참 복음을 전하더라도 그 중에는 바르게 듣지 못하는 자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때에 바울은 그들과 논쟁을 벌이며 말다툼을 벌이기보다, 진리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충성된 자에게 힘써 가르치기를 권면합니다.

2. 믿음은 불의로부터 떠나게 합니다(16~19).

16절은 바르게 듣는 일에 있어서 멀리해야 하는 말을 알려 줍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바울은 악한 말 듣기를 즐기다가 듣는 자의 인격이 악한 말처럼 변화되는 현상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의 염려는 비단 마음에서 그치지 않고 눈앞의 현실로 나타나곤 하였는데, 망령되고 헛된 말을 전한 대표적인 인물로 후메나오와 빌레도가 언급됩니다(17절). 기록에 의하면 이들은 복음을 듣기는 들었으나 전하는 과정에서 왜곡되게 가르쳤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믿는 자의 영혼은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 구태여 몸으로 고난당하며 힘들게 살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니다.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당시에는 지나친 쾌락주의가 양산되거나, 반대로 현실에 소망을 두지 않는 비관주의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영원히 폐기되지 않는 복음에 확신을 두며, 복음의 터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볼 것을 독려합니다(19절).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순전한 믿음이야말로 구원의 새 길을 완주하도록 이끄는 힘이 됩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피십시오.

1. 바울은 말의 효력을 강조하며 들어야 할 말, 듣지 말아야 할 말을 주의시킵니다. 나는 어떤 말 듣기를 가까이하고, 어떤 말 전하기를 좋아합니까?
2. 바울은 믿는 바에 관하여 확신하기를 권면하며 확신의 토대를 그리스도께 둡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나, 가정,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기를 기도합니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73:25~28 ²⁵ 내가 주님과 함께 하니, 하늘로 가더라도, 내게 주님 밖에 누가 더 있겠습니까? 땅에서라도,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²⁶ 내 몸과 마음이 다 시들어가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에 든든한 반석이시요, 내가 받을 몫의 전부이십니다. ²⁷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망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정절을 버리는 사람은, 주님께서 멸하실 것입니다. ²⁸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전파하렵니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말씀 속으로

20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In a large house there are articles not only of gold and silver, but also of wood and clay; some are for noble purposes and some for ignoble.

21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If a man cleanses himself from the latter, he will be an instrument for noble purposes, made holy, useful to the Master and prepared to do any good work.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보시다.

1. 하나님의 집에 다양한 백성이 함께합니다(20).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삶에 있어서 바울은 디모데로 하여금 진리를 분별하고, 가르치는 일에 힘쓰라고 부탁드립니다. 말다툼을 일으키며 거짓 교훈에 대항하기보다 진리로 어둠을 밝히는 방법을 선택하라는 교훈입니다. 디모데와 또 다른 충성된 자를 통하여 진리를 전파하시고, 복음이 역사하도록 이끄시는 분은 결국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바울은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일꾼이 어떤 자인지를 다시금 깨우쳐 주고자 합니다. 이 과정에서 흥미로운 사고 방식이 보이는데 교회로 추측되는 ‘큰 집’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이곳에 갖가지 재료를 만들어진 그릇, 예를 들면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을 언급하며 저마다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는 교회를 암시합니다. 이곳에 나타난 바울의 사고는 신분의 높고 낮음이나 재물의 많고 적음에 따라 사람을 판단하고 가치를 매긴 사회의 문화를 반영하다가 이내 사회는 그러하다면 큰 집인 교회는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2.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21)

세상의 기준으로 성도를 구분하는 일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사고에 반기를 들며 세상의 가치를 떠나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는 자가 곧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릇이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기준은 바울이 디모데를 뽑은 이유와 동일하게 ‘거짓 없는 믿음’, ‘순전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이에 따라 바울은 세상이 떠들썩하는 것에 마음을 두며 정신없는 삶을 살지 말고, 깨끗한 믿음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삶에 준비되어 있으라고 명령합니다. 성경은 그런 일꾼을 가리켜 주인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교회는 기초가 세워진 터를 기억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반석되신 그리스도 위에 굳건히 서서 말씀과 함께 살아야 하는 교회를 주목하시며, 그분의 일에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세상은 겉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에 든 것을 보십니다. 정직한 영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순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깨끗한 믿음이 대대로 이어지며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그릇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51:10~13 ¹⁰ 아,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¹¹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¹²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¹³ 반역하는 죄인들에게 내가 주님의 길을 가르치게 하여 주십시오. 죄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말씀 속으로

- 1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 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 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But now they mock me, men younger than I, whose fathers I would have disdained to put with my sheep dogs.

- 2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Of what use was the strength of their hands to me, since their vigor had gone from them?

- 3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Haggard from want and hunger, they roamed the parched land in desolate wastelands at night.

- 4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짠 나물을 꺾으며 대싸리 뿌리로 먹을 거리를 삼느니라

In the brush they gathered salt herbs, and their food was the root of the broom tree.

-
- 5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름으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에서 쫓겨나서

They were banished from their fellow men, shouted at as if they were thieves.

- 6 침침한 골짜기와 흙구덩이와 바위 굴에서 살며

They were forced to live in the dry stream beds, among the rocks and in holes in the ground.

- 7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 있는 나라

They brayed among the bushes and huddled in the undergrowth.

- 8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A base and nameless brood, they were driven out of the land.

- 9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And now their sons mock me in song; I have become a byword among them.

- 10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다

They detest me and keep their distance; they do not hesitate to spit in my face.

- 11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Now that God has unstrung my bow and afflicted me, they throw off restraint in my presence.

- 12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에워싸며

On my right the tribe attacks; they lay snares for my feet, they build their siege ramps against me.

- 13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They break up my road; they succeed in destroying me - without anyone's helping them.

- 14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They advance as through a gaping breach; amid the ruins they come rolling in.

- 15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 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Terrors overwhelm me; my dignity is driven away as by the wind, my safety vanishes like a cloud.

- 16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And now my life ebbs away; days of suffering grip me.

17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Night pierces my bones; my gnawing pains never rest.

18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 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In his great power God becomes like clothing to me ; he binds
me like the neck of my garment.

19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
셨구나

He throws me into the mud, and I am reduced to dust and
ashes.

20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I cry out to you, O God, but you do not answer; I stand up, but
you merely look at me.

21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 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You turn on me ruthlessly; with the might of your hand you
attack me.

22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 버리시나이다

You snatch me up and drive me before the wind; you toss me
about in the storm.

- 23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I know you will bring me down to death, to the place appointed
for all the living.

- 24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이까

Surely no one lays a hand on a broken man when he cries for
help in his distress.

- 25 고생의 날을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
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Have I not wept for those in trouble? Has not my soul grieved
for the poor?

- 26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
구나

Yet when I hoped for good, evil came; when I looked for light,
then came darkness.

- 27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
구나

The churning inside me never stops; days of suffering confront
me.

28 나는 햇볕에 쪼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I go about blackened, but not by the sun; I stand up in the
assembly and cry for help.

29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벗이로구나

I have become a brother of jackals, a companion of owls.

30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
구나

My skin grows black and peels; my body burns with fever.

31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My harp is tuned to mourning, and my flute to the sound of
wailing."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욥의 비장함 속에 믿음이 엿보입니다(1~15).

이제는 꿈만 같은 지난날을 떠올리며, 욥은 내심 행복을 느꼈을 법도 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도 잠시, 시선이 현실에 닿자 자신도 모르게 한탄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보다 어린 것들까지 나를 조롱하는구나. 내 양 떼를 지키는 개들 축에도 끼지 못하는 쓸모가 없는 자들의 자식들까지 나를 조롱한다.”(1절) 1절에 언급된 ‘젊은 자’의 존재에 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따르지 않지만 그동안 욥이 알고 지낸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름의 사람이 등장할 만큼 그가 겪은 고통의 정도가 느껴지기도 하는데, 무엇보다도 사람들에게 게 받는 배신이 비탄을 금치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욥의 탄식에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함께하는 이가 한 명 없는 고독한 상황에서도 정작 고난을 당하는 당사자 욥은 살기를 원했다는 점입니다. 생에 대한 욕구는 마음 한편을 채우고 있는 믿음을 엿보게도 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우시리라는 소망 말입니다.

2. 고난 속에서 욥의 믿음이 커져 갑니다(16~31).

삶에 대한 욥의 욕구가 점차 강렬해집니다. 화려하고 찬란했던 과거와 비통한 현실이 크게 대조되는 29장과 30장의 흐름 속에서 죽기보다 살기를 선택하는 욥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고사하고 하나님마저 침묵하시는 듯한 상황에서 어떻게 살기를 선택했는지 질문이 생겨 납니다. 그리고 불현듯 욥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어도 주님께서서는 내게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주님께 기도해도 주님께서서는 들은 채도 않으십니다.”(20절) 언뜻 보기엔 하나님을 원망하며 화를 내는 모습처럼 다가옵니다. 그러나 사면초가에 내몰린 상황을 짐작해 볼 때 욥의 울부짖음은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결을 기다리는 마음을 반영합니다. 사람들은 알아주지 못할지언정 하나님은 아신다는 믿음이 새로운 삶을 희망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욱 붙잡게 만든 것입니다. 욥기서는 우리를 또한 도전하며,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분량은 어느 정도일지 잠시 묵상하게 합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성경은 죽음에서 살기를 선택하는 욥의 변화된 심정을 보여 줍니다. 그의 이야기를 통하여 믿음이 가지는 능력을 묵상해 봅시다.
2.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수록 살아가기 시작하는 욥을 보면서 기도가 공급하는 은혜를 묵상해 봅시다. 이 은혜를 따라 내가 가진 어려움을 함께 고백합니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116:3~7 ³ 죽음의 올가미가 나를 얹어 매고, 스올의 고통이 나를 엄습하여서, 고난과 고통이 나를 덮쳐 올 때에, ⁴ 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간구합니다. 이 목숨을 구하여 주십시오” 하였습시다. ⁵ 주님은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며, 우리의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다. ⁶ 주님은 순박한 사람을 지켜 주신다. 내가 가련하게 되었을 때에,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 ⁷ 내 영혼아, 주님이 너를 너그럽게 대해 주셨으니 너는 마음을 편히 가져라.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산돌 손양원 목사님

글 장 춘 (은퇴장로)

갯바람 드센 애양원 바닷가
청솔잎 연초록 새순을 내는데
금잔디 무덤 앞에 손 모은 노부부
천리 길 멀다 앓고 찾아왔네

나라 잃은 서러운 시대
아버지 만세 불렀다고 퇴학 맞고
신사참배 거부하다 옥살이 4년
끓는 열정 한센병자들 부둥켜안고
입으로 피고름 어찌 빨아냈던가

유학길 앞둔 고교생 두 아들
교정에서 총살한 빨치산 청년
양아들로 들이고 감사 기도 올리던 날
땅도 바다도 없드려 전율했다네

48세 목자 인민군 포승줄에 묶여
대낮 네거리에서 총살 당할 때
아아, 우리 주님 또 한번 나무 형틀에
못 박혀 돌아가셨네

죽었지만 살아 있는 리빙 스톤
산돌 성자 손양원^{孫良源} 목사



15

—
주일

주일설교 노트

설교제목

성경본문

10/15~21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주십시오. 내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씻어 주십시오.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될 것입니다. (시 51:7)

October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말씀 속으로

- 1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라
 “I made a covenant with my eyes not to look lustfully at a girl.

 - 2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의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For what is man's lot from God above, his heritage from the Almighty on high?

 - 3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Is it not ruin for the wicked, disaster for those who do wrong?

 - 4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Does he not see my ways and count my every step?

 - 5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If I have walked in falsehood or my foot has hurried after deceit -
-

-
- 6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let God weigh me in honest scales and he will know that I am blameless -

- 7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if my steps have turned from the path, if my heart has been led by my eyes, or if my hands have been defiled,

- 8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바라노라

then may others eat what I have sown, and may my crops be uprooted,

- 9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If my heart has been enticed by a woman, or if I have lurked at my neighbor's door,

- 10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then may my wife grind another man's grain, and may other men sleep with her,

- 11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For that would have been shameful, a sin to be judged.

- 12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째 뽑기를 바라노라

It is a fire that burns to Destruction; it would have uprooted my harvest,

- 13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If I have denied justice to my menservants and maidservants when they had a grievance against me,

- 14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what will I do when God confronts me? What will I answer when called to account?

- 15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나

Did not he who made me in the womb make them? Did not the same one form us both within our mothers?

- 16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If I have denied the desires of the poor or let the eyes of the widow grow weary,

- 17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if I have kept my bread to myself, not sharing it with the fatherless -

-
- 18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버지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but from my youth I reared him as would a father, and from my birth I guided the widow -

- 19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본 채 했다면

if I have seen anyone perishing for lack of clothing, or a needy man without a garment,

- 20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받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and his heart did not bless me for warming him with the fleece from my sheep,

- 21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if I have raised my hand against the fatherless, knowing that I had influence in court,

- 22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 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then let my arm fall from the shoulder, let it be broken off at the joint,

- 23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For I dreaded destruction from God, and for fear of his splendor I could not do such things."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욥의 최후 변론이 전개됩니다(1~15).

욥은 모든 이가 자신을 외면하고 있는 현실을 인식합니다(30:1). 이후 31장에는 최후 변론이 이어지는데, 그 형식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일반적으로 변론이라 함은 들어주는 상대를 전제합니다. 그러나 곁에 아무도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지속되어 가는 그의 변론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느끼게 만듭니다. 인간은 제 말을 들어줄 사람을 찾기 마련이나 욥은 최후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것이 곧 의인의 믿음이라고 가르쳐 주는 듯 합니다. 첫 번째로 욥은 여인을 향하여 음욕을 품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힙니다(1,9절). 당시 사회에서 명망 있는 부자라면 아내가 아닌 다른 여인을 품는 일이 흔했던 모양입니다. 그럼에도 욥은 다른 여인을 품는 일을 금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마음의 출입을 지키고 살았습니다. 그의 마음이 모든 것을 가진 그때에나 맨 몸 하나만 남겨진 지금이나 욥이 동일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있으니, 그의 말에 거짓이 없습니다.

2. 욥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웃을 바라봅니다(16~23).

이번에는 가난하고 헐벗은 이웃의 친구가 되어 준 욥의 삶이 전해집니다. 성경은 그가 이웃을 향하여 자비를 베풀 수 있었던 근원적인 이유를 기록합니다. “나를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 내 종들도 창조하셨다.”(31:15) 그러니까 욥의 눈이 하나님의 시선을 꼭 닮아 함께하는 종들을 살필 줄 알았고, 가난한 이웃을 도울 줄 알았고, 고아를 헤아릴 줄 알았고,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손 내밀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욥은 연약한 자에게 자비를 베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거스르고 해를 가하는 일이 과연 가당하냐는 듯 반문합니다. “내가 재판에서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고, 고아를 속이기라도 하였더라면,”(21절) 악행에 닥쳐올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라도 사람의 생명을 결코 억압할 수 없었다고 대답합니다. 마음에 드는 생각뿐만 아니라 몸으로 하는 행동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한 욥의 삶이 참으로 감동을 줍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욥은 세상 풍조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았습니다. 그의 고백을 묵상하면서 마음에 드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2. 욥은 하나님을 통하여 이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해 갑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만나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깨끗한 눈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15:1~4 ¹ 주님, 누가 주님의 장막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²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 ³ 혀를 놀려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사람,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 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를 경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맹세한 것은 해가 되더라도 깨뜨리지 않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디모데후서 2:22~26

오늘의 찬송 368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 주사

 말씀 속으로

- 22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Flee the evil desires of youth, and pursue righteousness, faith, love and peace, along with those who call on the Lord out of a pure heart,

- 23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앎이라

Don't have anything to do with foolish and stupid arguments, because you know they produce quarrels.

- 24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And the Lord's servant must not quarrel; instead, he must be kind to everyone, able to teach, not resentful.

- 25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Those who oppose him he must gently instruct, in the hope that God will grant them repentance leading them to a knowledge of the truth,

26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and that they will come to their senses and escape from the
trap of the devil, who has taken them captive to do his will,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순전한 믿음에는 선한 열매가 따릅니다(22~23).

바울은 교회란 ‘거짓 없는 믿음’을 소유한 자들의 모임이라고 말하였습니다(2:20~21). 그러면서 거짓 없는 믿음이 놓이는 터가 다름 아닌 그리스도 예수이심을 강조합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믿음을 디모데에게 다시금 상기시키며, 그 역시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도록 격려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성경은 디모데뿐만 아니라 그가 ‘깨끗한 마음’을 가진 자들과 동역하기를 말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22절). 이런 자들과 함께하는 구원의 길에는 의, 믿음, 사랑, 화평의 열매가 따르지만, 청결한 마음을 갖지 않은 자들과 함께하는 곳에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이 일어날 뿐입니다(23절). 바울은 이 사실을 깊이 새기며 정한 마음을 사모하고, 정한 마음을 가진 자들과의 연합을 사모하기를 부탁드립니다.

2. 전도자에게는 온유와 절제의 은사가 필요합니다(24~26).

물론 바울이 거짓된 믿음을 가진 자들을 전적으로 배척하라고 충고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내는 망령되고 헛된 말에 일일이 대응하며 분쟁을 일으킬 이유는 없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들려주지 않을 이유 또한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기를 도전하는가 하면, 전도자의 직분을 감당하는 디모데에게 있어서는 무엇보다 가르치는 마음과 태도가 중요하다고 일깨워 줍니다. 듣는 자나 전하는 자 모두를 변화시키며 인도해 가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것을 잊고 전도자가 스스로의 행위에 따라 가르치면, 가르침의 내용은 참될지라도 그곳에는 성냄과 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는 ‘모든’ 자에게 복음을 전하되 특별히 듣지 않는 자에게는 온유와 절제로 대하며, 그들을 구원시키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온전치 못한 자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거짓 없는 믿음이기도 합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피십시오.

1. 바울은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자들과의 연합을 통하여 선한 일을 도모하기를 권면합니다. 이러한 축복된 연합이 나의 삶과 우리 가정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2. 청결한 믿음을 소유한 자는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나누는 통로로서 살아갑니다. 내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 위에는 어떤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까? 사모하는 은사가 있다면 주시길 간구합니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37:23~28 ²³ 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면,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 주시고, ²⁴ 어쩌다 비틀거려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시니, 넘어지지 않는다. ²⁵ 나는 젊어서나 늙어서나, 의인이 버림받는 것과 그의 자손이 구걸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²⁶ 그런 사람은 언제나 은혜를 베풀고, 꾸어 주면서 살아가니, 그의 자손은 큰 복을 받는다. ²⁷ 악한 일 피하고, 선한 일 힘쓰면, 이 땅에서 길이길이 살 것이니, ²⁸ 주님께서는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들을 돌보시기 때문이다. 그들은 영원토록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질 것이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말씀 속으로

1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But mark this: There will be terrible times in the last days.

2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People will be lovers of themselves, lovers of money, boastful, proud, abusive, disobedient to their parents, ungrateful, unholy,

3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without love, unforgiving, slanderous, without self-control, brutal, not lovers of the good,

4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느 것보다 더하며

treacherous, rash, conceited, lovers of pleasure rather than lovers of God -

5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having a form of godliness but denying its power. Have nothing to do with them,

6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They are the kind who worm their way into homes and gain control over weak-willed women, who are loaded down with sins and are swayed by all kinds of evil desires,

7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always learning but never able to acknowledge the truth,

8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Just as Jannes and Jambres opposed Moses, so also these men oppose the truth - men of depraved minds, who, as far as the faith is concerned, are rejected,

9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But they will not get very far because, as in the case of those men, their folly will be clear to everyone,

3:8 얀네와 얀브레

학자들에 따르면 두 인물은 이집트의 술객으로 추정된다. 모세가 이집트의 바로 왕 앞에서 기적을 행할 때 대적했던 거짓 선지자라는 해석이 있다.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말세에는 무정함이 가득합니다(1~5).

바울은 줄곧 거짓 없는 믿음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라고 당부했습니다. 본 단락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설명하는데, 당시에 바울이 본 시대상이 묘사됩니다. 성경은 바울과 디모데가 살아가는 시대를 두고 ‘말세’라고 칭하며, 난무하는 거짓 교훈이 말세를 암시하는 징표라고 이야기합니다(1절). 거짓 복음이 지배하는 땅에서는 사람들이 그릇된 사랑을 하며 살아갑니다. 왜곡된 연민에서 자신을 사랑하는가 하면, 하나님보다 쾌락 사랑하기를 즐겨합니다(2,4절). 잘못된 자기 사랑은 자연스럽게 이웃 사랑에도 영향을 미치며, 부모를 공경하지 않거나 타인을 향하여 비방을 던지고 폭력을 휘두르는 일을 서슴지 않습니다(3절). 이러한 모습을 가리켜 바울은 경건의 모양은 갖추고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사라졌다고 질책합니다(5절). 다시 말해 참 복음, 참 진리가 다스리는 땅에는 사랑의 꽃이 피지만, 거짓 교훈이 지배하는 땅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마저 무너지는 무정함으로 가득하다는 셈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라고 가르치며, 전하는 모습마저도 사랑과 온유와 절제로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2. 믿음을 저버린 어리석음은 드러나게 됩니다(6~9).

바울이 전한 교훈에 의하면 복음을 품은 자의 생명력은 하나님 사랑, 자기 사랑, 이웃 사랑의 온전한 실천으로 구현됩니다. 그 사람의 삶에 사랑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우리 자신이나 혹은 주변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듯, 믿음에 관하여 버림받은 존재가 언급됩니다. “또 이 사람들은 안네와 암브레가 모세를 배반한 것과 같이 진리를 배반합니다. 그들은 마음이 부패한 사람이요, 믿음에 실패한 사람입니다.”(8절) 그러면서 실패한 믿음을 가진 자들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묘사되는데, 이들은 가정 안에 파고들면서까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정욕의 지배를 받게 하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7절). 이때에 바울은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뿐만 아니라 듣는 자를 향해서도 경고하며, 진리를 대적하여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어리석다고 말합니다(9절). 그 끝에는 구원이 아닌 파멸만이 따를 뿐입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복음은 완전하지만 복음을 따르는 사람은 불완전합니다.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무정함을 보면서 들려주시는 말씀에 잠잠히 귀 기울여 봅시다.
2. 바울은 순전한 믿음을 저버린 자들을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구원의 길을 ‘끝까지’, ‘충성되게’ 걷기를 부탁하는 말씀을 묵상하며 주위에 믿음을 버렸거나, 믿음이 없는 이웃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12:1~3,6 ¹ 주님, 도와주십시오. 신실한 사람도 끊어지고, 진실한 사람도 사람 사는 세상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² 사람들이 서로서로 거짓말을 해대며, 아첨하는 입술로 두 마음을 품고서 말합니다. ³ 주님은, 간사한 모든 입술과 큰소리 치는 모든 혀를 끊으실 것입니다. ⁶ 주님의 말씀은 순결한 말씀, 도가니에서 단련한 은이요, 일곱 번 걸쳐 낸 순은입니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말씀 속으로

- 10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함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You, however, know all about my teaching, my way of life, my purpose, faith, patience, love, endurance,

- 11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persecutions, sufferings - what kinds of things happened to me in Antioch, Iconium and Lystra, the persecutions I endured, Yet the Lord rescued me from all of them,

- 12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In fact, everyone who wants to live a godly life in Christ Jesus will be persecuted,

- 13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while evil men and impostors will go from bad to worse, deceiving and being deceived,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바울의 유일한 자랑거리는 복음입니다(10~11).

거짓 사도들에 관한 이야기가 한창 이어진 후에 본 단락은 디모데를 칭찬하는 바울의 음성을 담습니다. 믿음을 저버린 자들과 다르게 그는 바울을 따라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냈습니다. 이에 관해 바울은 박해 중에 있는 자신을 저버리지 않고 동행하여 준 섬김의 삶을 끄집어내기도 합니다(11절). 참으로 바울만큼이나 복음을 품은 자의 삶을 산 디모데의 흔적을 느끼게 하는 순간에, 우리는 그의 삶에 본보기가 되어 준 바울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가 지난날을 회상하며 고백합니다. “나는 그러한 박해를 견디어냈고, 주님께서는 그 모든 박해에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11절) 죽음에서 영생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껏 바울의 삶을 인도해 왔다는 것입니다. 삶의 뿌리를 늘 기억하며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배설물로 여긴 바울의 믿음이 참으로 부럽기만 합니다.

2. 믿음의 경주는 끝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12~13).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자랑하지 않는다는 고백이 바울의 평탄한 삶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박해자로 산 과거에서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가 되기까지, 그의 인생은 고난 없이 이해하기가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13절은 그가 당한 고난이 무엇이었는지 짧막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더 악하여져서 나를 속이기도 하고 속이기도 할 것입니다.”(13절)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거짓 사도들이 들고 일어나서 진리를 대적하는 현실이 바울 자신의 고난이요, 애통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보다도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과 하나되어 살아간 사도의 삶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이때에 그는 믿음을 저버린 거짓 사도들의 존재는 물론이고, 다른 사람의 믿음마저 무너트리는 악행에 분노를 보입니다. 그만큼 믿음을 세워 가는 일은 평생에 걸쳐 따라야만 하지만, 믿음이 무너지는 일은 한순간이 될 수 있다는 경고를 더한 셈입니다. 그 일선상에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힘껏 고무시키며 복음을 사수하는 일에 박차를 가합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피봅시다.

1. 견문과 학식을 갖춘 바울이지만 복음을 유일한 자랑거리로 삼습니다. 삶의 연수가 차면 찰수록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2. 경건의 모양은 금세 갇출 수 있어도 경건의 능력은 한순간에 얻어질 수 없습니다.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 주셔서 오늘도 허락된 믿음의 경주에 신실하게 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96:9~13 ⁹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께 경배하여라. 온 땅아, 그 앞에서 떨어라. ¹⁰ 모든 나라에 이르기를 “주님께서 다스리시니, 세계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다. 주님이 만민을 공정하게 판결하신다” 하여라. ¹¹ 하늘은 즐거워하고, 땅은 기뻐 외치며, 바다와 거기에 가득 찬 것들도 다 크게 외쳐라. ¹² 들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도 다 기뻐하며 뛰어라. 그러면 숲 속의 나무들도 모두 즐거이 노래할 것이다. ¹³ 주님이 오실 것이니, 주님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니, 주님은 정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못 백성을 다스리실 것이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말씀 속으로

- 14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But as for you, continue in what you have learned and have become convinced of, because you know those from whom you learned it,

- 15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and how from infancy you have known the holy Scriptures, which are able to make you wise for salvation through faith in Christ Jesus,

- 16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All Scripture is God-breathed and is useful for teaching, rebuking, correcting and training in righteousness,

17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so that the man of God may be thoroughly equipped for every
good work.

3:16 감동
또는 영감

3:16 교육하기에
또는 징계하기에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예수님이 길ियो, 진리요, 생명입니다(14~15).

거짓 가르침에 관한 경고가 3장의 주를 이룹니다. 바울은 망령되고 악한 말을 전하는 자들을 가리켜 믿음을 저버렸다고 말하며, 생명이 아닌 죽음을 잉태하는 그들의 가르침을 멀리하기를 신신당부합니다. 이와 함께 참 복음, 참 진리를 얻는 방법을 설명해 줍니다.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15절) 놀랍게도 바울은 디모데가 ‘이미’ 복음을 접한 사실을 상기시키며 어릴 적부터 읽어 온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것에 확신하기를 명령합니다(14절). 확신 없는 믿음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고, 의심하는 믿음으로부터 주를 향한 배신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믿는 바에 대한 확신은 성경이 가리키는 이정표를 향하여 정진하도록 도와줍니다. 그 이정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요, 이정표가 되시는 그분이 또한 길이 되어 주셔서 믿는 자들의 구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2. 성경은 믿는 자의 스승입니다(16~17).

거짓 교훈은 패망의 길로 안내한다면, 성경은 구원의 길로 안내합니다. 바울은 거짓 교훈과 결정적으로 구별되는 성경의 역할을 성경이 가진 ‘권위’로부터 발견합니다. 즉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성경은 읽는 자를 바른 길로 인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독자를 이끄는 방식을 두고 16절은 ‘교훈한다’, ‘책망한다’, ‘바르게 한다’, ‘양육한다’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자의 영혼을 바르게 세워 줍니다. 참된 양식, 생명의 양식을 먹고 바르게 세워진 영혼은 그 사람의 믿음을 날로 장성케 하며,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서 있도록 도와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온전함’이 지식적으로 아는 상태뿐만 아니라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춘 모습을 함께 뜻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17절).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자의 인격과 삶을 총체적으로 다스리시기에 말씀 없이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기도 합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피봅시다.

1. 본문은 확신 없는 믿음을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모든 과정에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구하고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 본문 말씀이 나에게 교훈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말씀을 묵상하며 주시는 깨달음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73:1~2,24~26 ¹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건만,
²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²⁴주님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나를 주님의 영광에 참여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²⁵내가 주님과 함께 하니, 하늘로 가더라도, 내게 주님 밖에 누가 더 있겠습니까? 땅에서라도,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²⁶내 몸과 마음이 다 시들어가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에 든든한 반석이시요, 내가 받을 뉘의 전부이십니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21

토요일

욥기 31:24~40

오늘의 찬송 89 사론의 꽃 예수

 말씀 속으로

24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If I have put my trust in gold or said to pure gold, ‘You are my security,’

25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if I have rejoiced over my great wealth, the fortune my hands had gained,

26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if I have regarded the sun in its radiance or the moon moving in splendor,

27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so that my heart was secretly enticed and my hand offered them a kiss of homage,

28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then these also would be sins to be judged, for I would have been unfaithful to God on high,

29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If I have rejoiced at my enemy's misfortune or gloated over the trouble that came to him -

30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I have not allowed my mouth to sin by invoking a curse against his life -

31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였는가

if the men of my household have never said, 'Who has not had his fill of Job's meat?' -

32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 주었노라

but no stranger had to spend the night in the street, for my door was always open to the traveler -

- 33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if I have concealed my sin as men do, by hiding my guilt in my heart

- 34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because I so feared the crowd and so dreaded the contempt of the clans that I kept silent and would not go outside

- 35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Oh, that I had someone to hear me! I sign now my defense - let the Almighty answer me; let my accuser put his indictment in writing.

- 36 내가 그것을 어깨에 메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Surely I would wear it on my shoulder, I would put it on like a crown.

- 37 내 걸음의 수효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I would give him an account of my every step; like a prince I would approach him.") -

38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if my land cries out against me and all its furrows are wet with tears,

39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if I have devoured its yield without payment or broken the spirit of its tenants,

40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then let briars come up instead of wheat and weeds instead of barley." The words of Job are ended.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욥이 마음을 들여다봅니다(24~34).

1~23절에 기록된 변론은 욥의 두 가지 입장을 보여 줍니다. 하나는 마음에 음욕을 품지 않았다는 것,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웃의 권리를 보호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본 단락은 재물을 숭상한다고 비난하는 세 친구들의 주장에 맞서서 결백함을 증명하는 욥이 나옵니다. “나는 황금을 믿지도 않고, 정금을 의지하지도 않았다.”(24절) 하나님보다 재물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라고 정죄하는 친구들에게 그것은 큰 착각이라고 일깨워 줍니다. 그리고는 ‘마음’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며 심증을 밝히는 일에 초점을 둡니다. 만일에 친구들의 말마따나 욥이 재물을 보고 탐하는 마음을 가졌거나 눈부신 것을 소유하려는 마음이 있었다면, 결백함을 입증하려는 행위 역시 거짓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27~28절). 욥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상태를 진실하게 살필 줄 안 의인이었습니다. 그의 모습으로부터 우리는 깨끗한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 깨끗한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을 사모하게 됩니다.

2. 욥이 말을 그치고, 듣는 시간을 구합니다(35~40).

욥이 재물을 탐하지 않았다면, 과연 그의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었을지 질문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답이라도 하는 듯 말합니다. “내가 한 이 변명을 들어줄 사람이 없을까? 맹세코 나는 사실대로만 말하였다. 이제는 전능하신 분께서 말씀하시는 대답을 듣고 싶다.”(35절) 그를 향한 말씀이 부재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라는 고백으로부터 욥의 마음이 무엇을 향하여 있었는지를 짐작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듣고, 말씀대로 행하여 살아온 의인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한 욥의 믿음이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구현되었는지를 묘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이웃을 대하는 마음이 불가분리적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39~40절). 이처럼 지난날을 회고하며 입장을 변론하는 가운데 욥 안에 문득 생각이 스쳐지나간 것 같습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이 그립다. 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 그래서인지 긴 말 끝에 욥이 말을 그칩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말씀과 함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은 중요합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내 마음은 어떤 상태인지 들여다봅시다.
2. 욥이 말을 그쳤다는 40절의 기록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시간을 암시합니다. 기도와 기다림, 믿음과 인내가 나의 삶에 따르고 있습니까?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16:7~8 ⁷ 주님께서 날마다 좋은 생각을 주시며, 밤마다 나의 마음에 교훈을 주시니,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⁸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분,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쓴맛이 사는 맛

글 이순기(부목사)



경상남도 양산에 효암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학교 안에는 “쓴맛이 사는 맛”이라는 글이 새겨진 큰 바위가 있습니다. 한창 자라나는 고등학생들에게 들려주는 교훈이라기엔 너무 어려운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쓴맛이 사는 맛”이라는 말이 비판적으로 들릴 수는 있어도, 그 안에는 오히려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인생의 의미가 새겨져 있습니다.

“내가 인정이 안 되고, 억울한 마음이 들어도 쓴맛이 사는 맛입니다. 갈등되고 모순되는 문제에 닥칠 때, 그때 쓴맛을 느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되지요. 그때 사는 맛을 느끼는 겁니다. 그게 다 사람 사는 맛입니다. 인생에 단맛도 있습니다. 사람들과 좋은 마음으로 같이 바라고 그런 마음이 서로 통할 때 그때 인생이 참 달아요.” 같은 이름으로 출판된 “쓴맛이 사는 맛”이라는 책에 나오는 말입니다. “쓴맛조차 사는 맛이고, 오히려 인생이 쓸 때 거기서 삶이 깊어지니 그게 다 사람 사는 맛 아니겠냐”라는 교훈이 바위에 새겨져 있는 듯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슬한 어려움을 경험하기 마련입니다. 삶의 어려움 속에서 쓰다고 뱉어 버릴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면, 쓴맛도 사는 맛이 맞습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넘어서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삶을 끌어안으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생

각됩니다. 이런 방향성을 지니고 살아갈 때, 전도서의 말씀이 우리 가슴에 더욱 스며들어 오는 것을 느낍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칫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돌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 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전 7:2~4)

초상은 사람이 죽어서 장사 지낼 때까지의 일을 말합니다. 초상집은 초상을 당한 집에서 죽은 자에 대하여 슬퍼하며 애곡하는 장면을 연상케 하는 표현입니다. 그렇습니다. 초상집에서는 죽음을 마주하게 됩니다. 초상집의 분위기는 침울하지만, 인생이 무엇인가 사색하게 만드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초상집에 가는 사람들은 인생에 대한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삶을 보다 책임 있고 의미 있는 자세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자연스럽게 슬픔이 있는 초상집보다 경사스러운 잔칫집에 더 가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전도자는 모든 살아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인간은 모두 죽는다는 사실을 유심하라고 촉구합니다.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돌지어다”, 그러니까 죽음을 마음속에 둘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죽음을 목격하는 사람은 죽음의 심각성을 생각하여 죽음으로부터 인생의 짧음을 깨닫고, 인생을 올바르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지니게 됩니다. 타인의 죽음을 목도하는 것은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게 하는 기회를 줍니다.

전도서의 언급은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과 다릅니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으며, 즐거움보다는 애도가 더 낫다고 표현하고 있으니 매우 역설적입니다. **전통적인 지혜는 기운을 약하게 하고, 뼈를 말리고, 인간의 마음을 갇아먹고, 영혼을 올리는 슬픔이나 절망의 부정적 효과를 경계하는 데 비해, 전도서는 슬픔을 껴안고 오히려 애도의 집으로 들어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간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극히 제한적인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온다”는 것을 묵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다 가치 있게 삶을 살려는 각오를 다지게 됩니다. 이것이 초상집에서 간접적으로라도 죽음을 경험하는 것의 힘입니다.

마치 피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것이 인생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죽음은 거짓된 삶보다는, 진정한 삶을 향한 자신의 처지를 깨닫도록 인도해 줍니다. 우리 자신의 한계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될 것입니다. 슬프지 않은 데서 나오는 기쁨은 인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슬픔에서 나온 인생의 기쁨이야말로 험난한 인생살이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힘이 되지 않을까 묵상해 봅니다.**

22

—
주일

주일설교 노트

설교제목

성경본문

10/22~28 아,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건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시 51:10)

October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말씀 속으로

- 1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기므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So these three men stopped answering Job, because he was righteous in his own eyes.

- 2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켈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낸은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요

But Elihu son of Barakel the Buzite, of the family of Ram, became very angry with Job for justifying himself rather than God.

- 3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낸은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He was also angry with the three friends, because they had found no way to refute Job, and yet had condemned him.

- 4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Now Elihu had waited before speaking to Job because they were older than he.

5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But when he saw that the three men had nothing more to say,
his anger was aroused,

6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
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하므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
놓지 못하였노라

So Elihu son of Barakel the Buzite said: "I am young in years,
and you are old; that is why I was fearful, not daring to tell you
what I know.

7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
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I thought, 'Age should speak; advanced years should teach wisdom.'

8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But it is the spirit in a man, the breath of the Almighty, that
gives him understanding.

9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
니라

It is not only the old who are wise, not only the aged who
understand what is right.

- 10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Therefore I say: Listen to me; I too will tell you what I know.

- 11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I waited while you spoke, I listened to your reasoning; while you were searching for words,

- 12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욱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I gave you my full attention, But not one of you has proved Job wrong; none of you has answered his arguments.

- 13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지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Do not say, 'We have found wisdom; let God refute him, not man.'

- 14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But Job has not marshaled his words against me, and I will not answer him with your arguments.

15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었더라

They are dismayed and have no more to say; words have failed them.

16 당신들이 말없이 가만히 서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랴

Must I wait, now that they are silent, now that they stand there with no reply?

17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I too will have my say; I too will tell what I know.

18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For I am full of words, and the spirit within me compels me;

19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inside I am like bottled-up wine, like new wineskins ready to burst.

20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I must speak and find relief; I must open my lips and reply.

21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I will show partiality to no one, nor will I flatter any man;

22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for if I were skilled in flattery, my Maker would soon take me away.”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새로운 인물 엘리후가 나타납니다(1~14).

장장 31장에 걸쳐서 욥과 세 친구와의 대화가 길게 이어지는 가운데 32장에는 새로운 인물 ‘엘리후’가 등장합니다. 흥미롭게도 성경은 그의 등장을 알리며 ‘화를 내었다’고 연거푸 기록합니다(2~3절). 욥이 자신을 가리켜 의롭다고 하는 말에 화가 나고, 그런 욥을 제대로 충고하며 제지하지 못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답답했다는 것입니다. 보다 못한 그가 결국 바닥난 인쇄심을 보이며 분노를 표출하기 시작합니다(4~5절). 그러면서 욥이나 엘리바스, 빌닷, 소발보다도 연소한 자신이 성을 낼 수밖에 없는 데에는 전능자의 숨결이 계속해서 이끌고 가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8절). 마치 이전에 엘리바스가 자랑한 영적 경험이 떠올러지면서 그의 말이나 엘리후의 말이나 그리 다를 바 없겠다는 예감이 적지 않게 들기도 합니다(8절, 4장). 나이의 연소함을 언급하며 자신을 잠시 낮추는 것 같지만, 연소함에도 불구하고 네 사람보다 지혜롭다는 사실을 입증해 내려는 엘리후의 심정이 느껴지는 까닭입니다.

2. 엘리후의 당당한 말이 어쩐지 불편합니다(15~22).

물론 지혜를 깨달아 가는 과정에 나이의 연수가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연소한 엘리후가 그보다 나이가 든 욥의 세월을 어느 정도 체감할 수 있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다시 말해 이전에 욥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했고, 고난을 통과하는 지금은 어떤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사람으로서는 다 헤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엘리후가 가진 연약함, 어쩌면 사람이라면 모두가 가지는 연약함을 보여 줍니다.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요”(2절) 그 역시 세 친구들과 동일하게 욥의 죄를 전제하는 믿음을 보이며, 스스로 욥을 비난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벌입니다. 그러니까 엘리후의 눈에는 욥이 교만하여 함부로 질책하고 있지만 성경을 읽는 우리의 눈에는 엘리후야말로 자기 의에 사로잡힌 인물일 뿐입니다(21~22절). 그리고 보니 욥의 아픔을 헤아리기보다 제 말만을 잔뜩 늘어놓고 싶어하는 욕심쟁이처럼 보이기도 합니다(18~20절).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네 사람보다 연소한 엘리후가 욥에서 말미에 등장한 이유가 무엇일지 고민해 보면서 연로한 자의 말을 대하는 나의 태도는 어떠한지 돌아봅시다.
2. 다른 사람의 말은 슬기롭지 아니하고, 제 말만 슬기롭다 주장하는 엘리후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타인과의 의사소통에서 나는 어떤 자세를 취합니까?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90:12 ¹²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주십시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말씀 속으로

- 1 하나님 앞과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In the presence of God and of Christ Jesus, who will judge the living and the dead, and in view of his appearing and his kingdom, I give you this charge:

- 2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Preach the Word; be prepared in season and out of season; correct, rebuke and encourage - with great patience and careful instruction.

- 3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For the time will come when men will not put up with sound doctrine. Instead, to suit their own desires, they will gather around them a great number of teachers to say what their itching ears want to hear.

4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They will turn their ears away from the truth and turn aside to myths.

5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But you, keep your head in all situations, endure hardship, do the work of an evangelist, discharge all the duties of your ministry.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1~2)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이 거짓 교훈과 어떻게 구별되는지 설명되었습니다(3:16~17). 거짓 교훈은 패망의 앞잡이라면, 진리의 말씀이 담긴 성경은 성도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 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로 하여금 말씀을 전하는 삶에 힘쓰라고 보다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2절) 복음의 효력이 가득 나타날 때이든지 혹은 적대시하는 무리의 세력이 성행할 때이든지 상관 없이 말씀을 전파하는 전도자의 직분에 ‘항상’ 충실하라는 충고입니다. 여기에는 성경이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세우며 믿는 자의 영혼을 양육하듯이 전도자인 디모데 또한 말씀을 증거하면서 적절한 훈계를 함께하라는 조언이 따릅니다. 물론 그 훈계마저 ‘복음을 위하여’ 이루어져야 함이 마땅한데 그럴 때에 진리가 세상을 이기고, 진리가 거짓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의 싸움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가 다시 나타나실 때까지 인내를 가지고 참여해야 합니다.

2. 충성된 열심에도 신중함은 필요합니다(3~5).

은혜 안에서 전도자의 직분을 성실히 감당하더라도 그 시작과 마침은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때가 이르리니’, 그러니까 말세가 가까이 임하고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가 재림하시는 날이 가까이 다가오면, 놀랍게도 사람들 스스로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거짓 스승을 찾는 일에 혈안이 된다고 합니다(3절). 이러한 현상은 바울과 디모데가 산 시대에 이미 일어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말세의 징조를 다른 아닌 ‘듣는’ 행위와 연결하여 이야기합니다(4절). 진리의 말씀을 듣기보다 허탄한 이야기를 듣고 따르는 것에서부터 거짓 사도들이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는 일에 매진하도록 디모데를 복돋아 준 이유입니다. 그러나 거짓 사도들과 언쟁을 벌이기보다 바른 복음을 전함으로써 악을 이기라는 이전의 충고처럼(2:14~16), 바울은 전도자의 사명을 다함에 있어서 매사에 신중하기를 반복해서 당부합니다(5절).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는 권면은 주와 ‘항상’ 함께하라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기쁨을 느끼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2. 바울이 가르친 신실한 삶은 목적에 있어서는 복음을 위하여, 방법에 있어서는 사랑과 온유와 인내로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119:111~114 ¹¹¹ 주님의 증거는 내 마음의 기쁨이요, 그 증거는 내 영원한 기쁨입니다. ¹¹² 내 마지막 순간까지, 변함 없이 주님의 율례를 지키기로 결심하였습니다. ¹¹³ 나는, 두 마음을 품은 자를 미워하지만, 주님의 법은 사랑합니다. ¹¹⁴ 주님은 나의 은신처요, 방패이시니, 주님께서서 하신 약속에 내 희망을 겁니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디모데후서 4:6~8

오늘의 찬송 508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말씀 속으로

- 6 천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For I am already being poured out like a drink offering, and the time has come for my departure.

- 7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I have fought the good fight, I have finished the race, I have kept the faith.

- 8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Now there is in store for me the crown of righteousness, which the Lord, the righteous Judge, will award to me on that day - and not only to me, but also to all who have longed for his appearing.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바울이 디모데를 일으켜 세웁니다(6).

5절이 이렇게 끝납니다. “네 직무를 다하라” 한마디로 맡겨진 전도자의 직분에 힘쓰라는 부탁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권면이 있고 난 후에 흥미롭게도 6절에는 아버지 바울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디모데에게 부여된 책임감이 막중한 건 사실이나 그의 앞에서 바울의 삶이 함께하고 있으니 두려워말라는 격려이기도 합니다. “나는 이미 부어 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비유합니다. 그만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며, 그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 왔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의 신실한 믿음이 참으로 부럽게 느껴지면서도 죽음 앞에서 의연한 모습이 꽤나 놀랍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는 자신 안에 흐르는 기쁨과 감사가 아들 디모데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2. 바울이 예비된 은혜를 맞이하고자 합니다(7~8).

바울은 믿음을 지키며 선한 싸움을 싸워 온 삶을 가지고 아들 디모데를 계속해서 격려합니다. 그렇다면 그가 말한 ‘선한’ 싸움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않을 수 없습니다. 바울이 싸워 온 선한 싸움에는 선한 열매가 함께합니다. 이 서신을 받을 디모데를 비롯하여 그와 동역한 형제자매들이 바울이 얻은 열매입니다. 둘째, 바울은 사랑과 인내와 절제를 따라 말 그대로 선하게 거짓 교훈을 대항해 왔습니다. 거짓 사도들에 맞서 분쟁을 일으키거나 시비를 걸지 않고, 오직 복음에 합당하게 고난을 이겨 왔다는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보여 준 선한 싸움은 목적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8절에 의하면 ‘의의 면류관’ 곧 영원한 생명이 그를 기다립니다. 이때에 바울은 예비된 면류관을 상속받을 미래뿐만 아니라 면류관을 수여하실 분에게도 초점을 둡니다.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인하여 비로소 온 천하에 복음이 ‘참’으로 확증되고, 복음을 가르친 바울의 삶 또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이 은혜가 바울을 너머 디모데, 디모데를 너머 모든 신자에게 계속해서 향합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디모데는 바울의 신실한 믿음, 신실한 삶을 보며 힘을 얻습니다. 선한 것을 볼 때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니까?
2. 바울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예비된 은혜를 확신하며 살아간 사도입니다. 그의 믿음이 나와 가정 안에도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62~2,11~12 ¹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기다림은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이다.
²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시니,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¹¹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말씀하셨을 때에, 나는 두 가지를 배웠다. '권세는 하나님의 것'이요, ¹² '한결같은 사랑도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주님, 주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십니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디모데후서 4:9~16

오늘의 찬송 337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말씀 속으로

9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Do your best to come to me quickly,

10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for Demas, because he loved this world, has deserted me and
has gone to Thessalonica. Crescens has gone to Galatia, and
Titus to Dalmatia.11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Only Luke is with me. Get Mark and bring him with you,
because he is helpful to me in my ministry.

12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I sent Tychicus to Ephesus.

-
- 13 네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겹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When you come, bring the cloak that I left with Carpus at
Troas, and my scrolls, especially the parchments.

- 14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Alexander the metalworker did me a great deal of harm. The
Lord will repay him for what he has done.

- 15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You too should be on your guard against him, because he
strongly opposed our message.

- 16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At my first defense, no one came to my support, but everyone
deserted me. May it not be held against them.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바울의 사사로운 부탁이 전해집니다(9~12).

디모데를 힘 있게 고무시킨 바울의 조언에 이어 ‘사사로운 부탁’이라는 소재목이 등장합니다. 아마도 짧은 인사말을 덧붙이고 싶었던 모양인데, 디모데후서가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서신이라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그리 사사롭게 여길 수만은 없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단락 안에는 몇몇의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먼저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로마에 있는 자신에게로 속히 오라는 바울의 목소리가 담기고 난 후, ‘마가’가 지목됩니다(9,11절). 한때 바울과 사이가 틀어진 마가이지만 관계가 회복되고, 바울이 죽은 이후에는 디모데와 함께 사역을 이어 가는 동역자임을 암시해 줍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의 마음을 어지럽게 만드는 사람이 있었으니 세상을 사랑하여 복음을 저버린 ‘데마’가 언급됩니다(10절). 학자들 중에는 그가 이후 돌이켜 회개하고 선교에 참여했을 가능성을 열어 두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향해 올 디모데를 대신하여 에베소에 두기고를 보내는 바울의 세심함은, 그의 시대에 복음이 확장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비결을 가늠하게 만듭니다(12절).

2. 바울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13~16).

한 명, 한 명 이름을 호명하며 부탁을 남기는 문체에서 바울이 복음을 얼마나 사랑하였는지가 전해집니다. 생전에 그로 맺게 하신 열매가 계속해서 꽃을 피우며, 궁극적으로는 바울을 부르신 하나님이 영광받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일이 그러하듯이 하나님의 일에도 방해하는 세력은 따릅니다. 14절에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구체적으로 호명되며 바울의 사역에 해를 입힌 인물로 소개됩니다. 바울은 디모데와 같이 에베소에 거주하였을 그를 주의하라고 이르며, 복음을 적대시하는 세력을 삼가 조심하라고 명령합니다(15절). 그러나 그는 끝내 배신자들을 정죄하기보다 일의 결과를 주님께 맡기는 운유한 모습을 보이며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14,16절). 말 그대로 박해자들과 다툼을 벌이는 대신에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들과 동역하기를 힘쓴 것인데, 그들을 향하여 가져오기를 부탁한 사사로운 용품은 읽는 것만으로도 재미를 안겨 줍니다(13절).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본문은 복음을 향한 바울의 열심을 보여 줍니다.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삶 속에서 동역자를 사랑한 그를 보면서 혹시 나는 나만을 위한 복음을 믿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시다.
2. 바울은 남아 있는 문제를 주님께 의탁하며 죽음을 맞이하고자 합니다. 그의 모습을 통하여 주시는 마음을 기록해 봅시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66:8~12 ⁸ 백성아, 우리의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분을 찬양하는 노랫소리, 크게 울려 퍼지게 하여라. ⁹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게 살피 주신다. ¹⁰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셔서, 은을 달구어 정련하듯 우리를 연단하셨습니다. ¹¹ 우리를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우리의 등에 무거운 짐을 지우시고, ¹² 시켜서 우리의 머리를 짓밟게 하시니, 우리가 불 속으로, 우리가 물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마침내 건지셔서, 모든 것이 풍족한 곳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말씀 속으로

- 17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But the Lord stood at my side and gave me strength, so that through me the message might be fully proclaimed and all the Gentiles might hear it, And I was delivered from the lion's mouth,

- 18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The Lord will rescue me from every evil attack and will bring me safely to his heavenly kingdom. To him be glory for ever and ever, Amen,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바울의 비전이 알려집니다(17).

스쳐지나가듯 짧게 소개된 바울의 사사로운 용품은, 위대한 사도에게서 인간적인 모습을 발견하게 만듭니다(4:13). 두 모습 사이에 흐르는 묘한 긴장감을 마주하게 되는 이때에 바울은 그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로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한때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을 열렬히 핍박하는 유대인으로서 산 그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능히 감당하도록 능력을 주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를 고백하는 바울의 음성에서 어찌지 스테반의 이야기가 떠올라지기도 합니다. 박해로 인해 죽는 순간에 스테반은 핍박자 사울(바울)을 위한 기도를 드리며, 예수님이 명령하신 원수 사랑을 따랐습니다. 그의 모습이 이제는 로마 감옥에 투옥된 바울에게로 오버랩되며, 박해자들을 정죄하지 않겠노라는 고백으로 이어집니다(4:16). 이렇듯 성경은 한 알의 밀알처럼 살았다가 죽음을 앞두고 있는 바울의 생애를 기록하며, ‘모든 이방인’ 곧 세상이 그리스도의 소식을 듣게 되었다고 증언합니다.

2. 바울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입니다(18).

바울은 복음을 듣고, 세상이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비전을 품고 산 사도입니다. 이 꿈은 사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바울에 이어서 디모테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음을 앞둔 상황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며, 마침내 구원의 영광에 참여케 하시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모든 악한 길에서 건져내시고 또 구원하셔서 그분의 하늘 나라에 들어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이 고백이 기록된 이유를 질문하게 됩니다. 디모데에게 부탁을 담은 서신서라는 성격을 생각해 볼 때, 18절에 기록된 바울의 경배는 디모데로부터 흘러나올 찬양을 암시해 주는지도 모릅니다. 그야말로 사람의 몸은 매일 수 있으나 복음은 결코 매일 수 없다는 바울의 단호한 선언이 편지를 가득 채웁니다. 성경은 이 고백을 땅에서 이어 가는 자가 곧 복음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피봅시다.

1.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야기하며 남아 있는 자들을 세우고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죽음도 능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묵상하며 나의 삶에도 깊숙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2. 바울이 남긴 찬양을 묵상하면서 생애 마지막에 나는 어떤 말을 남기고 싶은지 생각해 봅시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103:19~22 ¹⁹ 주님은 그 보좌를 하늘에 든든히 세우시고, 그의 나라는 만유를 통치하신다. ²⁰ 주님의 모든 천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힘찬 용사들이, 주님을 찬양하여라. ²¹ 주님의 모든 군대들이, 그의 뜻을 이루는 종들이, 주님을 찬양하여라. ²² 주님께 지음 받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모든 곳에서 주님을 찬송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말씀 속으로

- 1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But now, Job, listen to my words; pay attention to everything
I say.

- 2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I am about to open my mouth; my words are on the tip of my
tongue.

- 3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
을 말하느니라

My words come from an upright heart; my lips sincerely speak
what I know.

- 4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
느니라

The Spirit of God has made me; the breath of the Almighty
gives me life.

-
- 5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Answer me then, if you can; prepare yourself and confront me.

- 6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I am just like you before God; I too have been taken from clay.

- 7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No fear of me should alarm you, nor should my hand be heavy upon you.

- 8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But you have said in my hearing - I heard the very words -

- 9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I am pure and without sin; I am clean and free from guilt.

- 10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Yet God has found fault with me; he considers me his enemy.

- 11 내 발을 차꼬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He fastens my feet in shackles; he keeps close watch on all my paths.'

- 12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But I tell you, in this you are not right, for God is greater than man.

- 13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Why do you complain to him that he answers none of man's words?

- 14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For God does speak - now one way, now another - though man may not perceive it.

- 15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In a dream, in a vision of the night, when deep sleep falls on men as they slumber in their beds,

16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써 두렵게 하시니

he may speak in their ears and terrify them with warnings,

17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to turn man from wrongdoing and keep him from pride,

18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to preserve his soul from the pit, his life from perishing by the sword,

19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쭈심 of 징계를 만나니

Or a man may be chastened on a bed of pain with constant distress in his bones,

20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so that his very being finds food repulsive and his soul loathes the choicest meal,

21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His flesh wastes away to nothing, and his bones, once hidden, now stick out,

- 22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His soul draws near to the pit, and his life to the messengers of death,

- 23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증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Yet if there is an angel on his side as a mediator, one out of a thousand, to tell a man what is right for him,

- 24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to be gracious to him and say, 'Spare him from going down to the pit ; I have found a ransom for him'-

- 25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then his flesh is renewed like a child's; it is restored as in the days of his youth,

- 26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므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He prays to God and finds favor with him, he sees God's face and shouts for joy; he is restored by God to his righteous state.

27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Then he comes to men and says, 'I sinned, and perverted what was right, but I did not get what I deserved.

28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He redeemed my soul from going down to the pit, and I will live to enjoy the light.'

29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재삼 행하심은

God does all these things to a man - twice, even three times -

30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to turn back his soul from the pit, that the light of life may shine on him,

31 읊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Pay attention, Job, and listen to me; be silent, and I will speak.

-
- 32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If you have anything to say, answer me; speak up, for I want you to be cleared.

- 33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But if not, then listen to me; be silent, and I will teach you wisdom.”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엘리후의 관점이 드러납니다(1~22).

엘리후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면, 욥이 당한 고난의 원인을 규명하는 일에 힘쓰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은 욥을 정죄하느라 정신이 없었지만 엘리후는 하나님의 처사에 항변하는 태도 자체를 문제 삼습니다. 아마도 네 사람 사이에 오고가는 대화를 엿들으며 제 나름대로 판단이 들어선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엘리후 편에서는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우선이니, 이것에 토를 다는 욥이 못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에는 그가 믿은 하나님이 잘 드러나기도 합니다. 엘리후에게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 이시며, 죄 지은 자에게는 마땅히 형벌을 내리시는 공의로운 분이었습니다(13~16절). 그러므로 욥이 하루빨리 돌이켜 회개하고, 그를 구하시려는 여호와와 뜻에 순종하기를 촉구합니다(17~18절).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살핀 데에서 세 친구보다는 성숙한 모습이 느껴지는 듯도 하지만, 어쩐지 환난당하는 자의 편에서 간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2. 엘리후가 확신에 찬 주장을 펼칩니다(23~33).

엘리후의 고백에 따르면, 고난을 통해 귀를 여시고 두렵게 하시는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자에게는 일천 천사 중 한 천사가 중보자로 서 주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23절). 달리 표현하자면 그 역시 세 친구와 마찬가지로 욥이 죄인임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난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뜻이자 주권이니 사람으로서는 그저 회개할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29~30절). 그가 이토록 하나님을 확신하는 만큼 욥을 대하는 태도 또한 거침이 없고, 당당합니다.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31,33절) 흥미롭게도 욥을 향한 엘리후의 음성 속에서 그저 잠잠하기를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듯도 합니다. 이것이 곧 엘리후가 가진 신관이었는데, 그의 하나님은 인간의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두려운 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율부짓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지 엘리후에게 질문을 던져 봅시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엘리후의 하나님은 인간의 현실에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절대 주권자로 묘사됩니다. 이러한 신관이 욥을 대하는 태도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2. 네 사람의 대화를 가만히 들은 후에 입을 연 엘리후의 말은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입니다. 아픈 자를 향한 공감이나 연민보다는 자기주장을 펼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119:166~169 ¹⁶⁶ 주님, 내가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주님의 계명들을 따릅니다. ¹⁶⁷ 내가 주님의 증거를 지키고, 그 증거를 매우 사랑합니다. ¹⁶⁸ 내가 가는 길을 주님께서서 모두 아시니, 내가 주님의 증거와 법도를 지킵니다. ¹⁶⁹ 주님, 나의 부르짖음이 주님 앞에 이르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깨우쳐 주십시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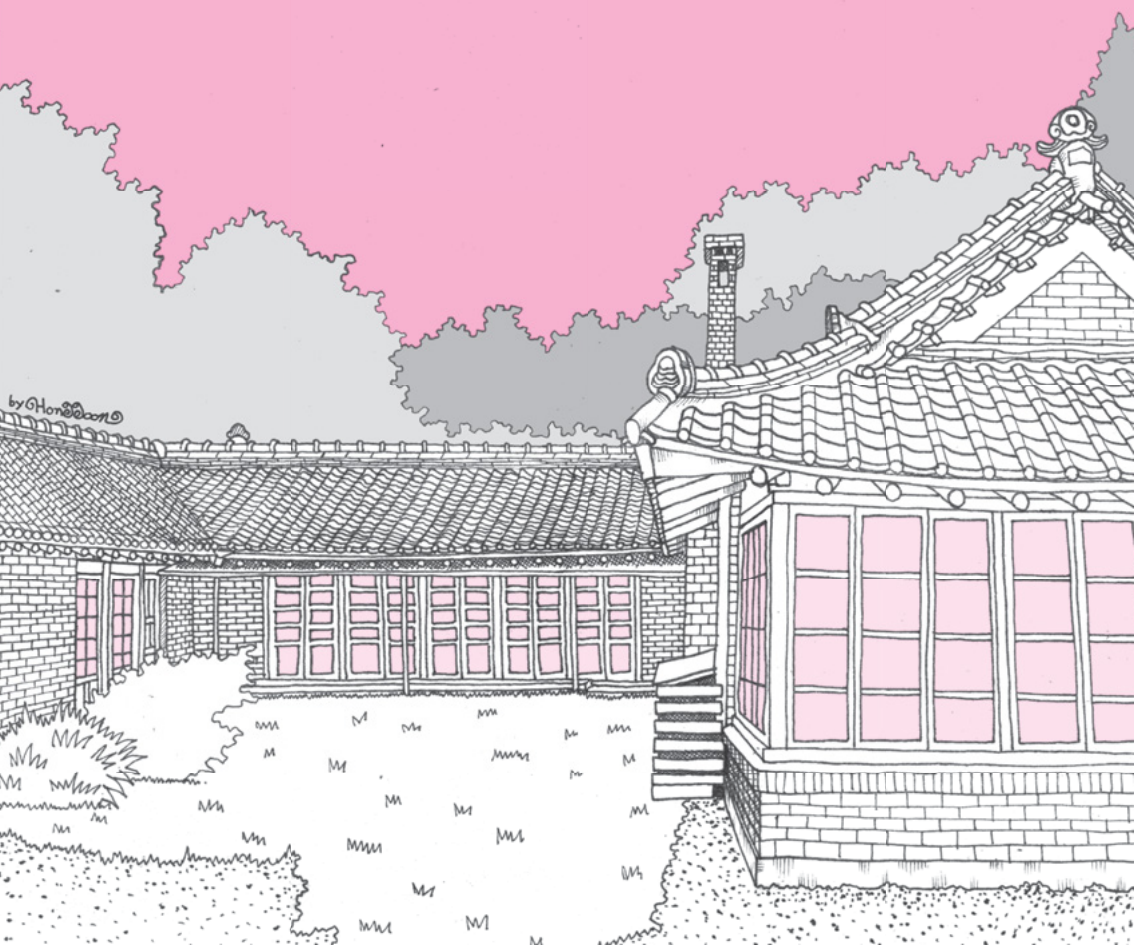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오정동 선교사촌_크림하우스 | 대전 대덕구 한남로 70 한남대학교

미국 남장로교 한국선교부는 1949년 대전에 새로운 스테이션을 설치하기로 하고 대덕군 회덕면 오정리(현 대전시 대덕구 오정동) 일대의 땅을 집중적으로 매입하였다. 전쟁으로 중단된 그 사업은 1954년 대전에 스테이션과 아울러 대학(한남대)을 세우는 것으로 급진전되었다. 이때 조성된 '오정동 선교사촌'의 3채의 선교사 주택 중 들어가면서 세 번째 집이 '크림하우스'이다. '크림하우스'는 1952년 남장로교 선교사로 파송되어 1966년까지 한남대와 장신대에서 가르쳤던 유명한 구약학자 크림이 살던 곳이다. 미국 브릿지워터 대학과 버지니아 유니온신학교를 나온 그는, 미국으로 돌아가 존낙스 출판사 편집장, 미국성서공회 굿뉴스바이블 번역위원, 컴먼웰스 대학교 교수, 웨스트민스터 출판사 편집장 등으로 활약하면서 미국 성서학 분야에서 매우 활발하게 활동했다.

-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편, <믿음의 흔적을 찾아_한국의 기독교 유적> 참고 -

홍성찬(홍군) | 예수쟁이고 겁쟁이고 가난뱅이고 복을 전하는 자유로운 장돌뱅이 www.honggoon.net



29

—
주일

주일설교 노트

설교제목

성경본문

10/29~11/4 젊은이가 어떻게 해야 그 인생을 깨끗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 그 길 뿐입니다. (시 119:9)

October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말씀 속으로

1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Then Elihu said:

2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Hear my words, you wise men; listen to me, you men of learning.

3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For the ear tests words as the tongue tastes food.

4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Let us discern for ourselves what is right; let us learn together what is good.

5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Job says, ‘I am innocent, but God denies me justice.

-
- 6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Although I am right, I am considered a liar; although I am
guiltless, his arrow inflicts an incurable wound.'

- 7 어떤 사람이 욕과 같으랴 욕이 비방하기를 물마시듯 하며

What man is like Job, who drinks scorn like water?

- 8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He keeps company with evildoers; he associates with wicked
men,

- 9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For he says, 'It profits a man nothing when he tries to please
God,'

- 10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So listen to me, you men of understanding. Far be it from God
to do evil, from the Almighty to do wrong.

- 11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He repays a man for what he has done; he brings upon him
what his conduct deserves.

- 12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It is unthinkable that God would do wrong, that the Almighty would pervert justice.

- 13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Who appointed him over the earth? Who put him in charge of the whole world?

- 14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대

If it were his intention and he withdrew his spirit and breath,

- 15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all mankind would perish together and man would return to the dust,

- 16 만일 네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If you have understanding, hear this; listen to what I say.

- 17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Can he who hates justice govern? Will you condemn the just and mighty One?

18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Is he not the One who says to kings, 'You are worthless,' and to nobles, 'You are wicked,'

19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낮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됴이라

who shows no partiality to princes and does not favor the rich over the poor, for they are all the work of his hands?

20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They die in an instant, in the middle of the night; the people are shaken and they pass away; the mighty are removed without human hand."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엘리후가 욥의 악행을 이야기합니다(1~15).

‘들으라 잠잠하라’, ‘들으라 잠잠하라’ 연거푸 반복된 엘리후의 말에는 욥의 잘못을 깨우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33:31~33). 이어지는 본 단락에서는 지금껏 진행된 대화를 들으며 그가 생각한 욥의 악행이 무엇인지 밝혀줍니다. 첫째, 욥이 스스로 의로움을 드러내며 고난을 허용하시고 회개시키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릅니다(5~6절). 둘째, 욥은 타인 비방하기를 몰마시듯 하고, 악인과 어울려 다니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로를 걸어 다닙니다(7~8절). 그러므로 엘리후가 보기에 욥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처사는 지극히 공의롭고 진실할 뿐입니다(7~8절). 그러나 우리는 그가 정말 욥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고 해석한 인물이었는지 반문하게 됩니다. 사실상 두 가지 이유는 현실과 반대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지혜 있는 자’, ‘충명한 자’를 소환하며 욥을 어리석은 자 취급하는 태도가 불편하기도 합니다(2,10절). 그 역시 자기 확신에 찬 주장을 펼치고 있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2. 하나님을 고백하는 일에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16~20).

우리는 잠시 엘리후가 전한 주장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7~8절에 기록된 내용은 언뜻 살펴만 보아도 사실이 아님을 금세 알 수 있습니다. 욥이 전한 최후의 변론만을 보더라도 엘리후의 성급한 판단을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욥이 정말 악행을 즐기는 자였다면 애시당초 하나님의 인정은 불가능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욥의 관점에서 5~6절을 해석해 본다면, 조정을 잘못 맞추고 있는 엘리후를 발견하게 됩니다. 즉 욥은 모진 환난을 당할 만큼 악행을 저지르지 않은 삶을 주장한 것이지, 본질상 연약한 인간의 존재를 무시하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죄인에게 형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행하지도 않은 죄를 나열하며 욥을 정죄하는 엘리후의 과실이 여실히 느껴집니다(16~20절). 하나님을 통하여 현실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과정에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 뜻을 묻는 겸손함이 우선되어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엘리후는 타인의 말을 잘못 해석할 때 가지게 되는 결함을 보여 줍니다. 올바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자세는 무엇입니까?
2. 욥은 하나님을 통해서 현실을 받아들이며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겸손함을 보였다면, 엘리후는 하나님에 대한 지나친 확신을 따라 잘못된 판단을 내립니다.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주시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25:8~10 ⁸ 주님은 선하시고 오바르셔서, 죄인들이 돌이키고 걸어가야 할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신다. ⁹ 겸손한 사람을 공의로 인도하시며, 겸비한 사람에게는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신다. ¹⁰ 주님의 언약과 계명을 지키는 사람을 진실한 사랑으로 인도하신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디모데후서 4:19~22

오늘의 찬송 430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말씀 속으로

19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Greet Priscilla and Aquila and the household of Onesiphorus.

20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Erastus stayed in Corinth, and I left Trophimus sick in Miletus.

21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테와 리노와 클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네게 문안하느니라

Do your best to get here before winter. Eubulus greets you, and so do Pudens, Linus, Claudia and all the brothers.

22 나는 주께서 네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The Lord be with your spirit. Grace be with you.

4:19 브리스가와 아 굴라

2차 전도 여행 중,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 당시 만난 동역자이다(행 18:2~3). 이 서신을 작성할 당시 이들 부부는 디모데와 함께 에베소에 머문 것으로 짐작된다.

4:20 에라스도

신약성경에는 '에라스도'라는 인물이 3번 등장한다(행 19:22; 롬 16:23; 딤후 4:20). 모두 동일한 인물이라면, 20절의 에라스도는 고린도 사회에서 유력한 인물이었을 것이다.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끝맺는 인사말이 기록됩니다(19~21).

죽음 앞에서도 바울은 자신을 끝까지 붙드시며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4:18). 그 기쁨이 디모데를 향한 인사말 가운데로 스며들며, 두 사람 사이에 이루어질 감격스런 재회를 상상하게 만듭니다.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21절) 당시 에베소에서 로마에 이르려면 뱃길을 이용해야 했는데, 안전한 항해를 위하여 11월~3월 사이에는 운항이 통제되곤 하였습니다. 바울은 이 상황을 고려하여 디모데를 재촉하며, 사랑하는 아들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은 마음을 전합니다. 로마에는 바울 외에도 디모데를 기다리는 동료 네 사람이 함께하였는데, 이곳 외에 그들에 관한 추가적인 진술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나아가 로마가 아닌 다른 지역에 거주하며 복음과 함께 고난당하고 있는 바울의 동역자들이 한 명, 한 명 소개되기도 합니다(19~20절). 이로써 디모데의 삶을 격려하는가 하면, 모두가 은혜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기를 부탁하는 심정을 서신 안에 깊이 새깁니다.

2. 바울이 디모데를 축복하여 줍니다(22).

사랑하는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축복은 이렇습니다. “나는 주께서 네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동안 바울은 하나님께 삶을 전적으로 의탁하며, 맡겨진 자신은 부르심의 확신을 따라 사도의 직분을 성심껏 감당해 왔다고 고백했습니다. 과연 살아보니 이것이 축복이면 축복이자, 은혜이면 은혜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디모데의 삶이 그와 같기를 간곡히 바라며, 바울 자신과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이 디모데의 삶에도 동행하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보다 더한 축복이 어디에 있을까 싶은 이때에 사려 깊이 디모데를 헤아려 주는 바울의 세심한 배려처럼 우리 또한 복음을 위하여 함께하는 형제자매를 살려내기를 꿈꾸어 봅니다. 성경은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들이며 복음을 위하는 삶에 참여하기를 결단하고 행한 디모데를 두고, ‘거짓 없는 믿음’의 소유자라고 증언하여 줍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죽음을 앞두면서도 동역자의 사정을 살피며 격려하는 바울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복음을 품은 마음을 보여 주는 인사말을 묵상하며 나로 생각나게 하시는 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2. 22절에 기록된 바울의 축복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며,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하루로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145:11~13 ¹¹ 성도들이 주님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님의 위대하신 행적을 말하는 것은, ¹² 주님의 위대하신 위엄과, 주님의 나라의 찬란한 영광을, 사람들에게 알리려 함입니다. ¹³ 주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며, 주님의 다스리심은 영원무궁 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모두 다 진실하고, 그 모든 업적에는 사랑이 담겨 있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청결한 마음, 복된 삶을 구하며

하나님,

높아지며 맑아지는 가을 하늘처럼

우리 마음도 청명하고 깨끗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가을빛 함빡 받아 익어 가는 열매처럼

땀 흘려 노력한 일의 결과가

아름다운 열매로 익어 가는 가을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땀 흘려 노력하지만

주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어떤 일도 바르게 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지 않으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주님께서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도 헛되다는 기도자의 고백처럼

오늘 이루고자 하는 작은 과제, 인생에서 꼭 성취하고 싶은 큰 목표 모두

주님의 도우심에 달려 있음을 항상 깨닫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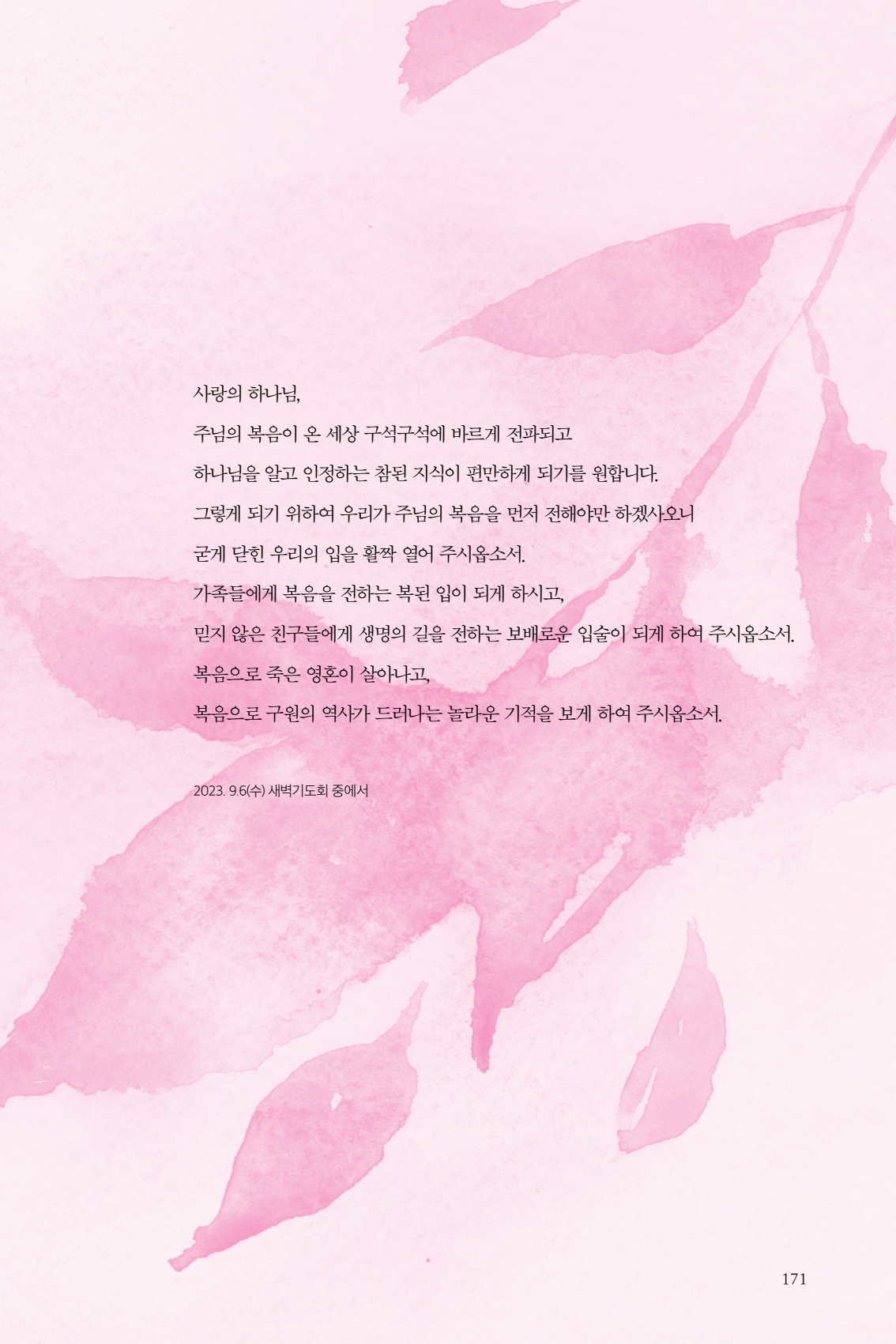
그러므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우리 일상을 붙들어 주시고,

어려운 고비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먼 훗날 지나온 길을 돌아볼 때에,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셨다고 감사한 마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복음이 온 세상 구석구석에 바르게 전파되고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는 참된 지식이 편안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먼저 전해야만 하겠사오니

굳게 닫힌 우리의 입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된 입이 되게 하시고,

믿지 않은 친구들에게 생명의 길을 전하는 보배로운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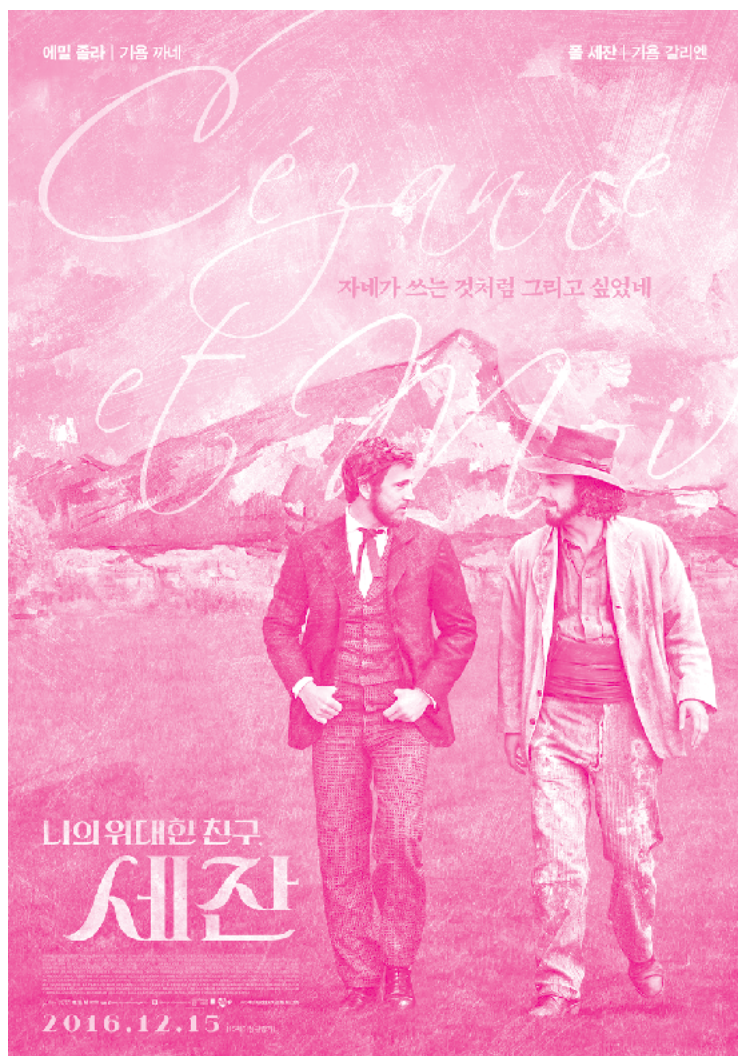
복음으로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복음으로 구원의 역사가 드러나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 9.6(수) 새벽기도회 중에서

<나의 위대한 친구, 세잔>을 통해 본 용서의 의미

글 황영미 (집사)



용서는 은혜이다

¹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¹⁵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마 6:14-15)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인간관계다. 사람 때문에 울고 웃고 갈등하며 살아간다. 관계가 한번 어긋나면 쉽게 풀리지 않는다. 그럴 때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고 관계를 끊기도 한다. 그것은 가족 간에도, 친구 사이에서도, 일 관계에서도 일어난다. 최근 도움이 되지 않는 주식을 정리한다는 '손절'이라는 경제 용어가 인간관계의 절교를 뜻하는 강한 표현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인간관계를 사물화시켜 돈 처리하듯 한다는 데서 유래한 말이다. 점차 개인화되고, 인간 관계도 자기중심적으로 변화하게 된 현실을 반영한 단어로 보인다.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용서한 것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는 구절이 있다. 그런데 과연 용서가 쉬울까.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지 않으면 인간의 관점에서는 어렵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의미를 깊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최근 절친이라는 말이 ‘가장 친한 친구’라는 의미로 쓰인다. 영화 <나의 위대한 친구, 세잔>이라는 영화에서는 절친이었던 화가 폴 세잔과 작가 에밀 졸라가 절교하고 평생 서로 만나지 않게 된 이야기가 나온다.

영화 <나의 위대한 친구, 세잔>의 상황

프랑스 작가 에밀 졸라와 화가 폴 세잔은 중학교 때부터 아주 친한 친구였다. 세잔은 남프랑스 엑상프로방스라는, 분수가 많은 아름다운 도시에서 은행가의 아들로 귀족처럼 자랐다. 하지만 에밀 졸라는 파리에서 태어나 토목 기사였던 이탈리아 출신 아버지가 엑상프로방스 근처 댐 공사에서 돌아가시고, 어머니의 삶바느질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가난하게 살았다. 중학교를 겨우 다닐 만한 형편의 졸라는 엑상프로방스식 발음을 하지 않고 이탈리아식 발음을 한다며 왕따를 당하기도 했지만, 세잔은 그를 늘 따뜻하게 대해 주었다.

세잔과 졸라는 중학교 때부터 함께 동네 산책도 하고, 들로 또 산으로 가서 그림도 그리고, 책도 함께 읽고, 강에서 낚시와 수영도 하면서 더욱 친해졌다. 그러나 졸라는 극심한 공공으로 어머니를 따라 파리로 전학을 가서 살게 되고, 이후 화가가 된 세잔도 졸라의 권유로 인상파 화가들과 교류하기 위해 파리로 떠난다.

이러한 세잔과 졸라의 관계가 <나의 위대한 친구, 세잔>이라는 영화에 그려져 있다. 이 영화는 세잔이 그림 그리는 과정을 보여 주는 오프닝에서 시작하여 과거 회상으로 중학교 시절 세잔과 졸라가 친해지게 되는 과정부터 성인이 된 두 사람의 가까웠던 교류와 손절하게 된 계기를 그린다. 두 사람이 얼마나 가까웠는지가 앞부분에 그려져 있기 때문에, 졸라가 쓴 『작품』이라는 소설이 발표된 후 진행되는 그들의 절교가 더욱 안타깝게 느껴진다. 세잔을 모델로 한 것이 아니라 여러 예술가들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캐릭터화했다는 졸라의 마음도 이해가 가고, 재능 없는 불운의 화가가 결국 자살하는 캐릭터(클로드)를 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그렇게 본 것이 아니냐며 화를 내는 세잔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간다.

올해 봄, 남프랑스를 여행하며 세잔 생가와 아틀리에 등을 방문하게 되면서 세잔을 마음 깊게 담게 되었다. 세잔의 생가에는 큰 정원이 뒤쪽으로 있었다. 앞쪽에는 길을 코너로 끼고 있는 바로크식 4층 건물이 있었는데 방이 몇 개인지 셀 수 없을 만큼 많았고, 다락방도 보였다. 도로쪽 문 위에는 ‘화가 폴 세잔이 태어난 집’이라고 새겨져 있다. 세잔의 아버지는 세잔이 가난한 졸라와 친한 것을 좋지 않게 생각했고, 아들 세잔이 법대에 진학하기를 원했는데 화가가 된 것도 마땅치 않게 여겼다. 그래서 세잔은 아버지와 갈등이 많았고, 세잔도 아버지의 돈을 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으며, 아버지도 부자였지만 최소의 생활비만 세잔에게 부쳤다고 한다. 그래서 파리 생활을 한 6개월은 『목로주집』으로 성공가도를 달리던 졸라가 오히려 세잔의 생활비를 도와줬다고 한다. 세잔은 파리에서도 인정받지 못한 괴로움으로 엑상프로방스로 되돌아가게 되고, 죽을 때까지 그곳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자신만의 화풍에 몰두했다고 한다.

세잔의 아틀리에 가는 길에는 도로명도 세잔의 길로 명명되었다. 세잔 아틀리에를 들어가고자 티켓팅을 하고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자, 전 세계 사람들이 몰려온 듯 줄 서 있는 사람들이 독 일어, 이탈리아어 등 다양한 국가의 언어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사망하기 2년 전이 되어서야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시작한 세잔은 그동안 인정받지 못한 자신의 재능 때문에 우울증도 앓았고, 자신의 그림을 찢어버린 적도 수없이 많았다고 한다. 세계적인 화가 피카소가 유일한 스승이라고 말한 세잔이었지만, 그의 대부분의 생전의 삶은 인정받지 못해 고통받으며 살아온 것이다. 지금은 세잔을 몸소 느끼려고 전 세계 사람들이 그의 아틀리에를 찾아오지만, 이런 일은 그가 살아생전 꿈도 못 꾸었을 것이다. 이처럼 예술은 예술가의 고통을 밑거름으로 꽃피우는 존재이다. 그러니 재능을 아직 인정받지 못한 예술가들은 절망하지 말 일이다. 고향도 그랬듯이 잠깐 살다가는 삶에서 인정받지 못했어도 사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지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아틀리에에서 조금 떨어진 세잔의 언덕에는 주위를 빙 둘러가며 세잔의 그림이 이젤 위에 있고, 특히 이곳에 와서 생트빅투아르산을 그렸던 세잔의 그림들이 전시되어 있다. 키 크게 자란 사이프러스 나무 등에 가려 일부만 멀리 보이는 산은, 세잔이 그린 당시에는 나무들이 많지 않아 이곳에서 세잔은 생트빅투아르산의 사계절을 여러 차례 그렸다고 한다. 세잔이 그림 그리는 곳에서 그 유명한 생트빅투아르산을 바라보는 감회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다. 역사의 현장을 탐방하는 기쁨은 삶의 총체성에 눈뜨는 위대한 순간에 온다.

영화의 말미에서는 『작품』과 관련하여 줄라와 세잔이 심하게 다투고, 이후 편지를 한 번도 주고 받지 않은 말년을 그린다. 줄라가 드레뤼스 사건을 덮으려는 정부에 반기를 들어 '나는 고발한다'는 서신을 대통령께 보내는 편지라는 이름으로 언론에 발표한 후, 정부의 탄압에 못 이겨 도피 생활을 할 때, 엑상프로방스에 오게 되는 에피소드를 구현한다. 산속에서 그림 그리던 세잔이 줄라가 엑스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와 사람들 무리에 끼어 줄라의 인터뷰를 보는 장면이 있다. 세잔 아틀리에를 방문할 것인가를 물었을 때, 줄라는 안 갈 것이라고 단호히 말한다. 그 모습에 세잔의 눈에서 분노와 실망감이 합쳐진 눈물이 흐르는 모습이 클로즈업된다. 실제로는 이런 에피소드가 없었다고 하지만, 세잔과 줄라의 어리석은 모습이라고 생각된다. **세잔은 갑작스럽게 사망한 줄라의 장례식에도 가지 않았지만, 엑상 프로방스에 줄라의 동상이 세워질 때 통곡의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그렇게 친한 친구였는데 사소한 서운함을 대화로 풀었다면, 죽은 후 통한의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 것이다.**

용서하는 크리스천

모든 인간은 부족함이 있다. 특히 예술가들의 예민한 감수성은 걱정과 맞물려 단점이 극단적으로 드러나고, 분노의 표출로 이어진다. 누군가와 앙금과 상처가 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상대방에게 다가가 사과를 하든 풀어야 할 일이다. 세월 지나고 나면 모두 다 무덤에 있을 존재들이니. 예수께서는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 인간 세상의 오행나 억울함은 그에 비할 바가 아니다. 기독교인들은 주님이 베푸신 용서의 의지를 본받아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며,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오해를 풀고 용서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또한 우리 자신을 위한 일이다.**

여름 잔치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영어아동부
중등부 고등부 드림부 대학부 청년부 청년플러스







산상수훈

글 · 그림 이호연 (성도)

마태복음 5장

¹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²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³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⁵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⁶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⁷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⁹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¹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¹¹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¹²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162 X 112cm
Oil on canvas
2012



현화이야기 21

10월, 우리의 고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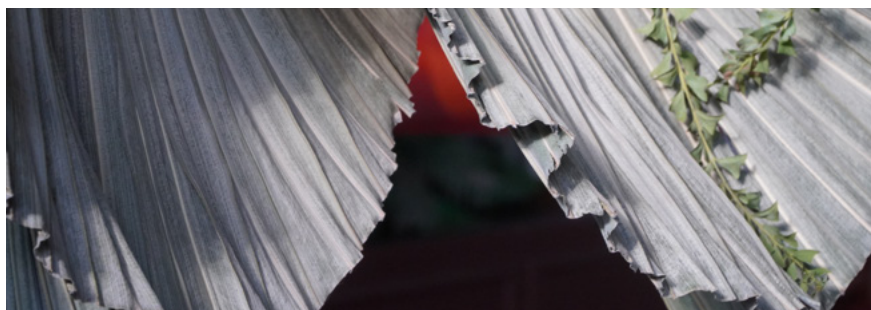


9월 3일 주일

글 김경연 (집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마 11:28-29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품 안에서
우리의 모든 상황이 위로받고 평안하기를 소망합니다.



9월 10일 주일

글 이수아 (집사)

여전한 무더위와
쉽지 않은 사회 속에서
심신이 지친 성도들을 위하여
가을을 대표하는 꽃인 해바라기로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성장을 표현하였고,
지치고 힘이 들 때
함께해 주시는 주님의 그늘막을
야자수에 담았습니다.



9월 17일 주일

글 김경은 (집사)

아름다운 열매가 익어 가는 이 계절,
우리도 풍성하고 은혜로운 믿음의 열매 맺기를 기도합니다.



온 세계가 나의 교구입니다

글 박경수 (목사, 장로회신학대학교 역사신학 교수)

그림 이근복 (목사, 한국기독교목회자위원회 원장)





웨슬리를 이야기할 때면 으레 등장하는 표어 ‘온 세계가 나의 교구입니다’는 그가 회심한 후 1739년 3월 28일에 쓴 편지에 나오는 표현이다. “나는 온 세계를 나의 교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구원의 복음을 즐겨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전도한다는 것은 바른 일이며, 또 나의 고귀한 책임이기 때문에 어떤 곳이든 찾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다고 믿습니다.” 이후 그는 자신의 표현 그대로 세계에 복음을 전하려는 듯 순회 설교자로 살았다. 평생 약 25만 마일(40만 킬로미터)을 여행했다고 전해진다.

[그림1]은 1739년 5월 9일 영국 브리스틀에 세워진 최초의 감리교회 ‘뉴룸(New Room)’에 있는 존 웨슬리 기마상이다. 브리스틀은 1740년대와 1750년대 존 웨슬리의 복음 사역 근거지였다. 실제로 그는 말을 타고 사방으로 복음을 전하러 다녔다. 어떤 때는 말에서 떨어져 크게 다쳤다. 환갑을 넘긴 1765년 12월 18일에 쓴 일기에는 “말을 타고 시내를 가고 있는데 말이 넘어지면서 그만 내 발이 말 아래 깔리게 되었다. 어떤 신사가 뛰어나와 나를 도와 꺼내 주었다. 오른팔과 가슴과 발과 발목에 심한 타박상을 입어 매우 많이 부었다”라고 적혀 있다.



그림 1

일흔을 넘긴 웨슬리가 소개하는 건강 비법은 흥미롭다. 그는 1774년 6월 28일 일기에서 말한다. “오늘은 내 생일이며, 72세를 맞는 첫 번째 날이다. 어떻게 내가 30년 전과 같은 힘을 가질 수 있는지 생각해 봤다. 오히려 그때보다도 시력이 상당히 좋아졌고 신경도 강해졌다. 좋은 방법이 있다면, 첫째는 50년 동안 계속해서 새벽 4시에 기상한 일, 둘째는 대체로 아침 5시에 설교한 일인데 이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건강법이다. 그리고 셋째는 바다와 육지로 적어도 1년에 4,500마일(7,250킬로미터) 이상 선교 여행한 일이다.” **말을 타고 온 땅을 누비며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색다른 감흥을 선사한다.**

존 웨슬리 채플이라 불리는 뉴룸은 영국 성공회 특유의 화려한 치장과 달리 소박한 단아함이 돋보이는 건물이다. 뉴룸에는 창문이 없다. 당시만 해도 성공회의 박해가 심해 창문을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대신 천장과 설교단 뒤편 채광창을 통해 빛이 자연스레 들어와 내부가 그리 어둡지 않다. 뉴룸 앞쪽에서 존 웨슬리 기마상을 볼 수 있다면, 뒤쪽에서는 손 들고 복음을 전하는 동생 찰스 웨슬리 입상과 만날 수 있다.

[그림2]는 런던 시티 로드 49번지에 위치한 ‘웨슬리 채플’이다. 웨슬리의 런던 선교 본거지였던 이곳은 그의 흔적을 만나기 위해 방문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장소다. 이전에 ‘파운드리 채플^{Foundry Chapel}’이라 불리던 것을 1778년 새롭게 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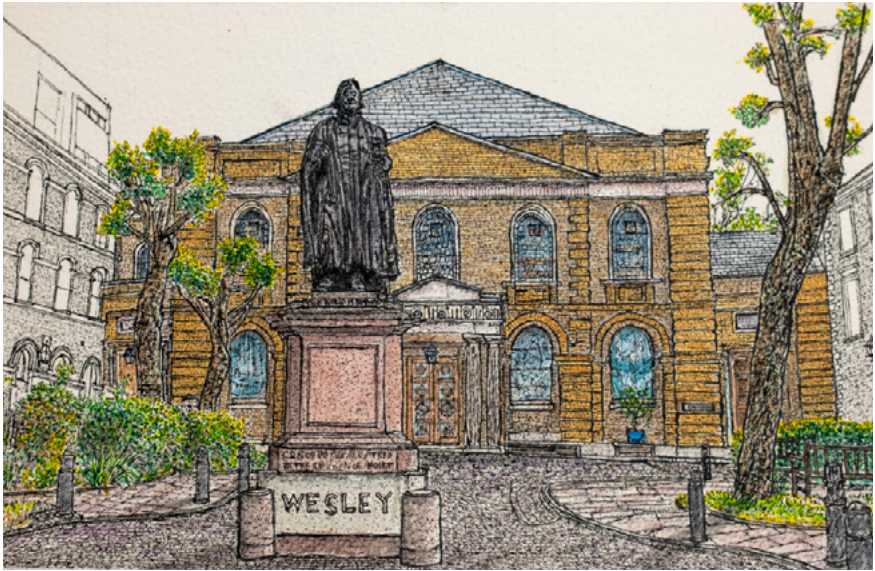


그림 2

했고, 1779년 이곳에서 영국 감리교회 최초의 연회가 개최되었다. 정문으로 들어서면 한 손에 성경을 들고 다른 손은 벌려서 앞으로 내밀며 축복하는 듯한 웨슬리 동상이 보인다. **동상 받침 대에는 ‘온 세계가 나의 교구입니다’라는 좌우명이 새겨졌다.**

웨슬리 채플 내부로 들어서면 성경과 웨슬리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19개 스테인드글라스가 아름다운 예배당 분위기를 연출한다. 2층 회랑에는 만국기가 걸렸다. 설교단 뒤편에는 판이 3개 있는데, 좌우 판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이 나뉘어 기록되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른 하나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다. 중앙 판에는 사도신경이 있다. 웨슬리 채플을 바라보았을 때 왼쪽에는 ‘파운드리 채플’이, 오른쪽에는 4층 건물 ‘웨슬리 하우스’가 있어 그의 일상을 엿볼 수 있다.

웨슬리 채플 지하에는 1984년 개관한 ‘감리교 박물관’이 있다. 채플 뒷마당에는 웨슬리 무덤이 있고, 채플 길 건너편 ‘번힐필드’에는 어머니 수산나 무덤이 있다. 존 웨슬리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다”는, 그가 어떻게 이토록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답이 될 것이다.

※ 저자의 허락을 받아 <복음과 상황>에 수록된 글과 그림을 게재하였습니다.

가정예배에서 부모는 정비사가 아니라 정원사입니다!

글 신형섭 (목사,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학 교수)



철을 따라 열매 맺으시는 하나님

믿음의 부모는 자녀의 인생에 신앙정원사입니다. 시편 1편 3절에 나오는 복 있는 자의 인생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나무에 비유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의 인생 계절에 따라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복을 누리게 하는 인생으로 자라나게 하십니다.

본문에 나오는 계절을 뜻하는 ‘철’이라는 단어는 70인역 성경에 의하면 물리적으로 흐르는 객관적인 시간을 의미하는 ‘크로노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시간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의 뜻과 능력을 나타내시는 질적인 시간을 의미하는 ‘카이로스’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 세대들을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은, ‘어느 시간’이 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의 시간’으로 나아갈 때 주시는 은혜임을 알려 줍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로, 하나님의 철을 따라 길러내실 때에 믿음의 부모는 그 철을 따라 수고하며 심기는 신앙정원사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정비사는 기준을 세워놓고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부품을 속히 갈아끼워야 하는 기술자이지만, 정원사는 기르는 나무가 마침내 변화되도록 수고하며 함께 계절을 보내는 동행자입니다. 그러기에 지혜로운 정원사는 같은 나무를 길러도 그들의 계절에 따라 봄에는 봄의 수고를, 여름에는 여름의 수고를, 가을에는 가을의 수고를, 겨울에는 겨울의 수고를 감당합니다. 스스로 원하는 계절을 당겨오는 자가 아니라 주어진 계절에 합당한 수고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부모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에게 주신 연령과 영적인 계절에 따라 그에 합당한 과제와 수고를 분별하며 성실히 길러야 합니다.

가정예배의 부모는 정비사가 아닌 정원사

지혜로운 정원사는 나무의 계절에 따라 자신이 해야 할 수고를 아는 것처럼 믿음의 부모는 신앙의 정원사로서 맡겨 주신 자녀들의 인지적, 정서적, 발달적, 신앙적 특징을 알고, 그에 합당한 섬김과 실천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1. 영아기 자녀와 드리는 ‘평안과 안정의 가정예배’

만 18개월이나 24개월에 해당하는 영아기 때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경험하는 정기적인 사건은, 평생에 걸쳐 아이에게 자라날 의미 있는 성장의 씨앗들이 자라나도록 하는 토양(정서적, 관계적, 신앙적)이 일구어지는 핵심적인 자리가 됩니다. 따라서 영아기 가정예배의 핵심은 아기의 삶에 안전하고 행복한 영적 리듬을 세우는 것입니다.



영아기 자녀들의 삶의 리듬은 주로 잠에서 깨고, 먹고, 놀고, 씻고, 자고를 반복하는데, 이러한 일상 안에 아이가 엄마와 함께 얼굴을 마주하고 가장 행복하게 교감하는 시간을 찾아서 가정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 시간에 아기를 안고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과 엄마의 기도이지만 아기 역시 엄마와의 정서, 관계적 언어로 하나님을 마주하는 시간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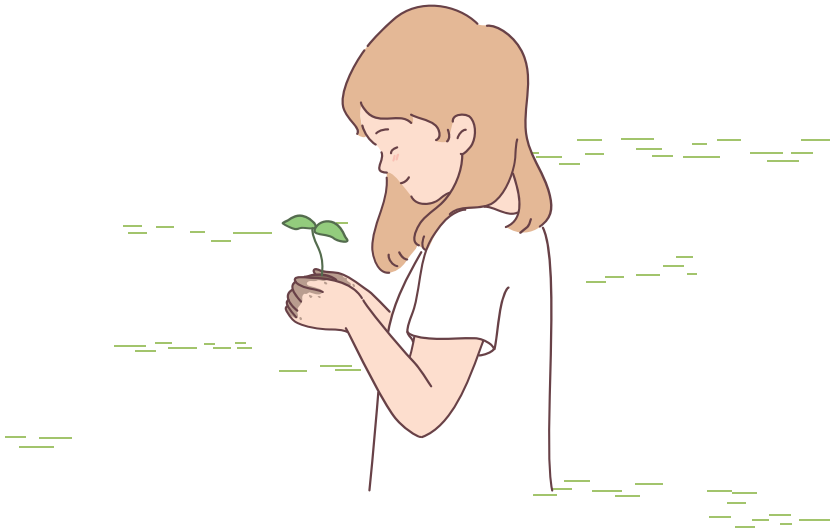
2. 유아기 자녀와 함께 드리는 ‘모방과 모델의 가정 예배’

만 2세에서 3세까지의 유아기는 자기 중심적 사고와 모방이라는 학습 통로를 통하여 세상을 배워 가는 시기이기에, 유아기 자녀와 함께 드리는 가정예배는 가정예배의 행동을 설명하며 교정하기보다는 부모 자신이 자녀에게 좋은 예배의 모델을 보여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정예배 시간에 찬양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도는 어떤 자세로 해야 하는지,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떤 모습으로 들어야 하는지 등 부모가 좋은 모델을 보여 줄 때 유아기 아이들은 모방하기를 기뻐하며, 예배자의 모습으로 빚어져 갑니다. **내 자녀를 어떻게 좋은 예배자로 세울 것인가 가르치기 이전에 부모가 먼저 온전한 예배자로 참여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3. 유치기 자녀와 함께 드리는 ‘성경적 훈육과 오감의 가정 예배’

만 3~5세까지의 유치기 자녀들은 세상을 더욱 적극적으로 탐구하는 주도권을 가지며, 인지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시기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호기심과 주도권을 보장하면서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선택하여 교정할 수 있도록 돕는 성경적 훈육이 요청됩니다. 만일 자녀가 바르지 않은 모습을 보일 때 부모가 감정적으로 혼내고 행동을 교정하는 것은 바른 훈육이 아닙니다. 자녀들은 이미 어떤 행동이 바른 찬양, 기도, 말씀 듣는 행동인지를 알고 있기에 이것만을 지적하고 교정하는 순간 아이들의 마음에는 죄책감이 채워지



게 됩니다. 바른 예배는 자녀에게 죄책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바른 예배의 기준을 확인시켜 주고, 옳은 것을 스스로 택할 수 있는 기회와 함께 응원해 주는 지도가 요청됩니다.** 성경적 훈육을 통해 자녀들은 스스로 바른 예배의 모습을 자신의 마음과 인격 안에 채워 가게 됩니다.

또한, 유치기는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이 폭발하여 설명적, 교리적이기보다 전감각적이고 놀이적이며 체험적으로 자신의 삶과 이야기를 연결하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단순히 말이나 그림성경만으로가 아니라 집안에 있는 종이, 점토, 초, 전등, 레고 등을 활용하는 것은 매우 유용한 가정예배 실천법이 됩니다.** 이렇듯 가정예배 시간을 통해 자녀들이 성경이야기를 마음껏 상상하고 표현하며 이야기의 사건을 경험할 때, 성경 이야기의 권위, 가치, 메시지는 아이들의 삶에 스냅샷처럼 강력히 남게 됩니다.



Story | 의료선교부가 전하는 돌봄의 창[®]

사랑과 신뢰

글 노승철 (집사)



우리 신체 중 하나인 구강은 음식의 섭취, 저작 및 연하라고 하는 소화 기계의 역할만이 아니라 비호흡(非呼吸)을 보조하고, 소리를 내게 하는 호흡 기계의 역할을 합니다. 이에 따라 구강안면영역의 많은 근육들이 동원되어 구순, 뺨, 혀 및 인두만이 아니라 악골, 경추 관절의 움직임도 지지하게 되는데 성장기에 이리한 근육의 기능 부전 및 기능 이상이 존재한다면 악골과 치열에 밸런스가 깨져 여러 가지 교합 이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교합은 성장 발육 및 악운동, 혀와 구강주위근, 저작근 및 경부근 활동과 호흡 양식에 의해 영향을 받아 변화하게 됩니다. 만일에 호흡 양식, 혀와 구강주위근 및 저작근 활동이라는 기본적인 기능에 눈을 돌리지 않고 부정 교합의 개선만을 고려한다면, 성장 발육 및 악기능의 밸런스

가 깨지게 되어 교합이 불안정해지고 턱관절의 기능에도 이상이 생기게 되며, 심미적인 관점에서도 부자연스러운 안모를 가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일반적으로 치과 교정 치료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메카노세라피(기계적 치료)가 사용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치료에 사용하는 교정 장치는 세련된 설계에 성형 가공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학, 치의학 영역에서 선풍되게 되었지만 우수한 공학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메카노세라피에만 의존할 때는 치명적인 결점이 존재하게 됩니다.

개인 악안면의 차이에 대한 생물학적 관점에서의 진단 평가, 즉 관련된 구조체의 역학 관계를 고려한 평가가 결여된다는 점입니다. 기계적 치료에만 의존할 경우, 악안면의 구조에 대한 각각의 구성 요소들의 기능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기 때문에 악안면형태의 형성 과정에 간간이 되는 뼈와 근육의 상호 작용이 미치는 영향이나, 새로운 위치에 배열된 치아에 대해서 주위 조직들의 기능이 가지는 영향에 대한 인식이 현저히 결여됩니다. 따라서 기계적 교정 치료만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악골 및 근육의 밸런스를 회복하여 기능적인 문제를 회복시킴으로써 환자의 심미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기능적인 면까지 좋게 변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교정 치료의 과제는 단순히 개개 치아를 미리 정한 위치에 배열하기 위해 적절한 장치를 사용하는 것을 뛰어넘어, **치아와 주위 조직의 건강을 함께 유지하면서 혀를 포함한 악안면 주위 근육들의 잘못된 습관을 교정하고 치아들을 최적의 위치에 배열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목표를 가지면서 이루어지는 교정 치료는 환자의 웰빙을 고려한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악골 및 주위 근육들의 부조화 및 잘못된 구강 습관으로 인한 부정 교합은 청소년기에 바로잡아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발치나 양악 수술 등의 위험하고 후유증이 남을 수밖에 없는 치료 방법들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청소년기 혹은 그 이전에 종합적인 교정 진단을 통하여 문제를 진단하고, 이후의 성장을 예측하여 예방적이고 근본적인 치료를 통한 교정(비발치 및 비수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는 환자와의 신뢰 관계를 확립해야 합니다. 교정 치료 또한 다른 치료와 마찬가지로 환자와의 협력이 중요한데, 이때 환자의 협조도가 의료인과의 신뢰 관계에서 생기기 때문입니다.

환자와의 신뢰 관계를 형성하면서 환자가 교정 치료를 통해 얻고 싶은 목표를 주의 깊게 듣고, 객관적인 진단 자료를 통해 적절한 치료 방법을 제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30년 가까



이 가져오면서 환자의 마음을 읽어 주고 이해하는 마음, 환자 한 명 한 명을 대할 때마다 긍휼한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마음속 깊이 깨닫고 있습니다. 모든 진료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인정할 때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조금씩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역사하심을 느끼며 저에게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또 그 사랑으로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제 자신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병원에서 이사가 말씀을 읽다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처음 소망교회에 나왔던 대학교 1학년 때를 거슬러 올라가 유교 문화의 가정에서 자라난 저를 하나님이 영원 전에 지명하셨고, 부르셨고, 지금껏 인도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지낸 10대 시절까지도 저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에 저도 모르게 감탄과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사는 부족한 저이지만, 이런 저를 포기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느끼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한 마음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고 싶습니다. 이 고백이 저희 가정 안에 흘러가고, 하나님 안에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이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9월 셋째 주

44기 교사대학 수료예배

지난 3월 개강해 6개월 동안 교사대학 과정을 마친 44기 교사대학 수강생들이 다음 세대 자녀들을 양육할 교회학교 예비교사로 세워졌다. 지난 9월 6일 저녁 7시 30분 삼일기도회는 44기 교사대학 수강생 73명의 수료 예배로 드려졌다. 3월부터 상반기 동안 ‘교사의 기본기 점검’, ‘교사들을 위한 기도 생활’ 등 열 번의 강의와 여름 방학 기간 3개월의 교육 부서 현장 실습을 마친 수강생들은 교회학교 교사로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찬양했다. 교회학교 담당 이재겸 목사는 교사대학 수료자들이 교사로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고 전했다. 교회학교 1부 이장현 부감이 사회를 맡은 수료증 수여식에서 수료자 73명을 대표해 소년 2부 김민철 교사가 소감문을 낭독했다. 소망교회 교회학교장 김경진 담임목사가 수강생 대표에게 수료증을 수여했고, 과정에 한 번도 빠지지 않은 고등 2부 한창석 교사 외 44명에게 개근상을 시상했다. 수료자들은 아이들과 더 가까워지는 실습, 섬김의 시간을 통해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을 전하는 교사가 되기를 다짐했다. 교사대학에서 배운 이론과 말씀을 삶의 자양분 삼아 소망의 예비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길 소망한다.



9월 셋째 주

블레싱 기도회 개강



여전도회와 교회학교 주관으로 어머니 기도회 ‘블레싱’이 지난 9월 6일 오전 10시, 제2교육관 1 예배실에서 개강했다. 무더운 여름, 잠시 쉬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온 어머니들은 영적 가족이자 동역자를 재회한 기쁨을 나눴다. 영아 2부 담당 강미나 전도사가 여전도회 찬양팀과 함께 찬양을 인도했고, 소년 2부를 담당하는 김미리내 목사는 ‘벼랑 끝에서’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전했다. 김 목사는 위태로운 절벽에서도 안전줄을 믿고 길을 만드는 잔도공을 예로 들며, 벼랑 끝에 있는 것 같은 상황이라도 함께하시는 주님을 신뢰할 것을 말했다. 이어진 기도회에서 참석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모습을 회개하며 자녀와 가정, 부모님 등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염려를 기도를 통해 주님께 맡겼다. 또 어려운 걱정거리를 안고 기도회에 참석한 옆 지체들을 위해 기도했다. 참석자들은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큰 위로를 받았다고 고백하며 비슷한 걱정을 가졌기에 더 깊이 공감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블레싱 기도회로 어머니들을 초청했다. 블레싱 기도회는 수능 한 주 전인 11월 8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진행되며, 추석 연휴를 앞둔 9월 27일은 쉰다. 태산 같아 보이는 우리 문제를 더 큰 능력으로 감당해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부르짖는 믿음의 어머니들의 기도가 시원하게 응답될 것이라고 믿는다.



2023 | 10

발행인 김경진

편집위원 윤환

유지미

김영규

홍성민

이순기

편집주간 류현조

편집장 하수경

편집팀 홍성찬

홍희선

디지털콘텐츠 조성실

디자인 워크워크

인쇄 금호인쇄

발행일 2023년 9월 23일(통권 142호)

발행처 소망교회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 36길 55(구 신사동 624)

문의 02-512-9191

알립니다

소망 성도님들의 이야기(말씀을 통해 받았던 은혜, 신앙간증)를 보내 주세요.

보내실 곳 : somangtpd@naver.com